

격월간

# 중국을 주께로

1992. 7. 8

■ 통권 제 18 호



중국어문선교회

1992. 7. 8

## 목차

### 말씀

-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는가? / 김전식 목사 — 2

### 특 집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선교와 과제 / 김바울 교수 — 5
- 在滿 朝鮮人教會와 中國宣敎 / 金亨錫 교수 — 10
- 외항선교와 중국선교 / 송시영 간사 — 17
- 중국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 / 주지호 목사 — 21

### 탐방 · 스케치

- 창성교회를 가다 — 28
- '92 중국선교대회를 마치고 — 24

### 연구 · 세미나

-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과 중국선교 / 마중가 교수 — 26
- 삼자인사의 시각에서 본 현재 삼자교회의 걱정과 문제 — 29

### 인물 · 간증

- 淸末 民初에 뛰어난 여의사와 전도사였던 石美玉 — 38
-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 — 40

### 선교상식

- 중국의 민속 풍물이야기 祈雨 — 58
- 중국여행상식 — 56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 37
- 중국선교 참고도서 — 61
- 중국어로 찬양을 — 45
-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46

### 소식 · 기도

- 최근 중국동향 — 48
- 기도제목 — 62
- 소식 — 63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는가?

김건식 목사(창성교회)

야곱은 울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  
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  
할 때에 위굴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  
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  
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  
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  
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  
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  
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  
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  
도뼈 큰 힘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  
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창 32:24~32)

본문에서는 참으로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곧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  
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  
이신가를 알기 위하여 방황하였던 신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어떤한 사람이었습니까?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보장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의 사랑  
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 환경

과 배려, 그리고 교육 속에서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권을  
실제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  
서의 낚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 가야만 했습  
니다. 그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년 만에 고향과 부모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땅으  
로 들어가려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과  
압북강가에서 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이  
었겠습니까? 누가 참피온이 되는가를 가리  
기 위한 씨름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그와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묵상해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  
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으며 또 시편 8편 4  
절의 표현처럼 '사람이 무엇이냐?' 는 문제  
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  
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8:4)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씨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  
기자신을 적나라하게 발견했다는 것과 우리  
들 자신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70년대 전후로 해서 지  
금까지 널리 퍼져있는 소위 성공하는 복음,  
적극적인 Message 와 본문의 이야기는 완전  
히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라는 생각하에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적극적이

고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독려하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말하려는 진리와 정반대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빼앗고 하란으로 갈 때의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비록 고향과 부모를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겠지만 지상최대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소위 말해서 '성공적 신앙과 복음'에 편승하여 떠나면 길을 떠나갔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었습니까?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압목강가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은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새벽이 되자 다리를 절던 야곱은 육신적인 기력은 쇠하고 몸은 상하게 되었지만 신앙은 새로워졌고 수단뿐이며 남을 잘 속이며, 영똥한 짓을 잘하는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능력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과 권세를 가진 인물이라는 의미인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매우 인상적이며 감동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

까? 첫째, 사람들에게 최악의 적은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인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 자신 속에 가지고 있던 모순된 갈등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 없지만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의 욕심을 추구했고 그러한 그의 모습이 육신적인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대부분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압목강가에서 밤에 기로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새도록 싸움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싸움의 대상이 에서였는지 하나님이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누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상대방의 타격에 의하여 한쪽다리가 절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갈 때에 야곱의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묵상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신앙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한마디는 자기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한 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자기부정의 말이요. 자기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허물어뜨리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최대의 적은 세상적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인간적으로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일행

들은 먼저 가고, 나만 홀로 하나님과 함께 남았나이다. 사람이 홀로 남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든지간에, 그것은 최악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때 야곱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의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공교롭게도 먼 나라는 추축입니다만 압복강이 있는 곳 데가볼리 지방 즉, 갈릴리 동편이었습니다. 야곱이 엎드렸던 곳 씨름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자신에게 물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인가 아니면 돼지치는 사람인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거지? 탕자가 자기자신에게 묻고 자기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아버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야곱과 씨름을 한 그 사람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질문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서게 되면 질문 받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야곱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이름 속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모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악삭빠르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 주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물어 주실 때에만이 동시에 우리들은 그분의 이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야곱이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자기자신의 진자 모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역경 가운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시고 그 이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자신의 이름을, 본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묻는다고 그 이름을 알려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깨달은 사람에게만 바로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시고 그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며 인간의 모든 일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자신을 진정으로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특 집

본특집은 지난 6월5일과 6일에 걸쳐, 인천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내에서 '중국선교와 인천'이란 주제하에 열렸던 "'92중국선교대회" 때의 감의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92 중 국 선 교 대 회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선교와 과제

김바울 박사

#### I. 선교목표와 선교전략

우리가 선교를 하려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말씀과 그에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에 붙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복음 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상황적인 요소이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사람들과 상황적 요소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섭리적으로 사용하신다. 오늘날 인천은 중국선교에 있어 바로 이런 상황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천은 중국선교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선교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선교전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교전략은 우선 선교목표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연합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지체가 간절히 도움을 원할 때 하나님의 준비된 또 다른 지체로서의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교회가 하나님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는 일도 분명 선교목표의 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개인적인 달란트와 비전이든 이것이 일반적인 자원이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자원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나라의 확장이란 목표를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중국의 선교현장에서 한족이든 만주족이나 회교족 혹은

조선족이든 그들의 실제필요가 무엇인가를 그들의 총체적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고 파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단기적인 선교대책을 수립하여 나아가는 일, 이것을 일러 선교전략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선교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는 인본적인 방법에서가 아니라 성경적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선교할 수 있는가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 II. 성경 속에 나타난 선교의 모습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히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용의주도하게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13-22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군중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처음 모세는 자기 혼자 능력과 경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책망받게 하시고 지혜를 얻도록 하셔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솔하고 교육시킬 수 있게 하심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셨다. 또 느헤미아서를 보면 느헤미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성벽을 건축해야겠다는 하나님나라와 연결된 비전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유대인들의 신앙적 확신이 없었고 외

적으로는 가나안 토착민들의 노골적 적대로 인한 갖은 방해와 모략으로 이 일을 중단시키려 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 때 느헤미아는 용의주도하게 낮에는 성벽을 쌓게 하면서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연장을 들게 하여 24시간 교대로 하나님의 일이 잘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주변 불신 세계에 확장되게 될 즈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구체화하는 일에 있어 본토 유대인 성도와 헬라지역에서 온 유대인 성도 사이에 알력이 생긴 것이었다. 이 사소한 일로 교회 안에 소동이 일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사 제도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 문제가 해결토록 하셨다. 따라서 사도들은 기도와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서 교회가 체계있게 일하도록 역사하셨다. 한편 사도 바울의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자. 바울의 1, 2,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의 결과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갓 세워진 어린 교회들로서 교회내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즉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방종교적 관례와 윤리풍속이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진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행사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복음의 본질이 혼동되고 도전받는 것으로 비쳐졌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를 바울은 홀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바울의 선교팀들이 서로 의논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에 파송해서 계속 이방선교를 감당케 한 예루살렘 모교회에 그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개최토록 역사하셨다. 야고보 장로의 사회로 피선교지의 문제를 놓고 사도바울과 바나바 등 선교지의 지도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인 후 기도하는 가운데 질서있게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렇듯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역은 성경을 몸과 지체와의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몸의 각 기능이 다르듯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

기적으로 통합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 조직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다. 우주적 교회의 지체로서 선교를 담당하는 자로서든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지역 교회로서든지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 III. 선교의 주제

이런 구체적인 조직과 방법론은 분명한 목표설정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선교는 분명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므로 우리는 항상 3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바울은 이미 오래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듯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온 유럽을 덮게 될 것이었다. 또한 바울은 성령충만한 사람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뒤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판단과 계획을 세워 즉 목표와 전략을 세워 조직적으로 선교여행을 계속했다. 그런데 행 16장을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자기 계획대로 선교여행을 계속하려 했을 때, 밤에 성령께서 보이신 환상을 통해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계획과 조직과 목표가 있으나 우리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선교의 모습이다.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에게 유럽으로 옮기셨던 것이다.

### IV. 바울의 선교전략

유수한 신학자들 특히 조직신학자로 알려진 루이스 불코프의 연구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선교전략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단지 성령충만하여 내키는 대로 선교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바울은 분명한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이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전략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들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주목했다. 즉 대개가 국제적 교역의 중심지와 군사요충지로서 대도시들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교통의 요

지로서 사람의 왕래가 잦고 모든 것이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역적 특성을 포착했다는 것이 된다. 바울은 우선 중요 도시를 집중적으로 찾아가 일정기간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의 지도력을 배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통해 그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확장시키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다른 미복음화 개척지로 떠나갔다. 그는 이런 국제적 중심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교회를 세운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빌립보, 골로새, 두아디라, 로마, 고린도 교회 등을 설립하면서 그곳에 지도력을 세우고 난 후 떠나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과 관계를 단절치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어린 교회들의 신학적이며 영적이고 생활적인 모든 문제들을 자기의 문제로 삼고 이들을 격려하여 성숙한 교회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놀라운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전략인 것이다.

#### V. 인천의 선교전략적 특성과 그 선교전략

그러면 인천이 갖는 선교전략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천은 천진과 위해를 잇는 국제적 통로이다. 적어도 1년에 수만 명이 인천을 통해 중국을 오가는 셈이다. 위해지역에 가보니 인천과의 페리호 운항 이후 무척 발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이 알기엔 위해에 산둥과 연결된 대규모의 경제특구가 우리 한국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인천과 중국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이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연구인력, 사업가, 학생들이 바로 위해와 인천항을 통해 더 많이 왕래하게 되어 장차 인천은 만주에까지도 연결되는 한국과의 교류의 주통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이 갖는 상황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중국선교 수립에 있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어떤 원리와 통찰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상황적 전략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 1. 접촉점을 개발해야 한다.

비록 중국인들이 1년에 수만 명이 오고간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외항선박에 승선한 중국인 선원을 접촉해서 그들 풍토에 맞는 고도화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인천은 첫 기착지로서 여기에 조선족이나 한족의 중국인들이 머물게 될 텐데, 이들에게 전도할 전도팀과 교회적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중국어와 문화, 그들의 현재 상황과 세계관 그리고 그들 삶의 필요를 이해하는 훈련을 받고 이들 중국 조선족, 한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인천지역의 교회들이 여기서부터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2.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접촉점을 갖는다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LA에는 중국 유학생 7~8000명이 UCLA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수학중에 있다. 이에 미국 복음 학생선교단체가 'Mission Home'을 설치하여 그들을 집중양육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삶을 통해 함께 하는 이런 비격식적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교로 마음이 전달되고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들의 복음지식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핏박이나 고난중에도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세워져야 한다.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럴 때 그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그 가정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그것이 지역사회를 향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확장통로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된 동일한 방법인 것이다.

#### 3. 지역교회를 통한 교회생활과 목양생활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교회는 중국인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야한다. 오늘 중국어문선교회 같은 선교전문단체들이 중국인을 접촉하고 전도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해도 그들에게는 교회생활의 적응과 교회 성도들과의 공동체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지역교회를 통해 직분을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려 하면 지역교회를 통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교회와 연결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현지에 돌아가게 되면 정착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길 목양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삼자교회의 강경한 종교내규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하나 집단으로서는 목양적 교육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그들이 인정하는 신학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도 실질적으로는 정치교육이 주된 것으로 실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백성을 굳게 세울 수 있는 목양적훈련을 받지 못하므로 졸업 후 안수받은 이후에도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4. 현지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중국현지는 종교내규에 의해 아직도 신앙생활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과 핍박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섬기려 하는 많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있다. 실지로 이들이 이 일에 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어디로 갈지 방황하고 있으며 더구나 한국교회로부터 자칫 은혜받기보단 시험받기가 십상이다. 그렇다면 인천지역의 교회들이 이들이 파송교회의 신뢰받는 지도자인가를 잘 확인하고 그 동기를 살펴서 교회의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그들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또 바울처럼 귀국 후에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격려하여 하나가 되도록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단 이들의 신분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기 바란다. 여기서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을 위해 감독관리와 책망을 통해 바로 세워주고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돌아보고 계속해서 지도력을 개발해 주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국인들에게 중국내 2억여 명의 미복음화 소수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선교적면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가지고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앞서의 이러한 전략 외에 좀더 발전적 전략 몇 가지를 부연하고자 한다.

① 현지 상황에 맞는 교회의 교육적이고 목양적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내에는 지금 당국의 조건부 허락하에 외국재단의 재력과 인쇄시설로 성경이 1년에 20만 부씩 인쇄되어 대도시 소수 교회에서 판매되지만 그 많은 수요에 인구 80%를 점하는 시골 교회까지 미치기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성경을 만져보지 못하는 성도가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믿어주기 바란다. 더구나 당국은 내심 성경이 배포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고 또한 정상적 신학훈련이 없어 성경이해가 부족한 가정교회 지도자에겐 관주성경이 더없이 필요한데 배포되는 중국현지의 성경마저 관주성경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 말씀에 굶주린 중국성도들에게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집사, 전도자를 양육 훈련시킬 교재자료 유년부, 청년부, 농촌교회 젊은이,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훈련교재들이 너무도 요청되는데 사실상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에는 이런 교육적 목양자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② 방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당국의 제지를 받기까지 홍콩의 FEBC(극동방송)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지도자 훈련을 효과적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③ 현지교회와의 유기적 연결 속에 직접적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은 한계가 있다. face to face식의 훈련으로 따스한 피가 소통하며 삶을 나누는 직접적 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 VII. 중국선교에 있어 유의할 점

다음으로 중국선교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자 한다.

### 1. 교파의식을 심지 말 것

중국교회내에는 교파가 없다. 한때 한국 모교단의 모교회가 자기 교파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려하다가 교파가 없는 중국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2. rice christian(먹을 것을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을 양산해 내지 말 것.

현실적으로 북경이나 기타 대도시에는 종교 브로커들이 진을 치고 있다. 지혜롭지 못하면 귀한 현금만 날리고 웃음거리만 되게 될 위험이 산재해 있다.

3. 그들로 열등의식을 느끼게 하지 말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기는 종의 자세이다. 경제적 우월감으로 자랑하는 설교는 일체 금물이다.

#### VII. 삼자교회와의 접촉에 있어 유의할 점

또 삼자교회를 접촉해야 될 때 조심해야 할 일 몇 가지가 있다.

1. 삼자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이들도 있어 내심으로 또는 노골적으로 정부의 종교방침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삼자교회의 지도자들과의 접촉 때에는 분별력이 있게 대처해야 한다. 비록 외국인이 합법적인 경로로 그 무슨 재단을 세우고 선교의 거점을 확보했다고 생각해도 이들이 접촉하고 협력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임을 기억할 때 그 신빙성 여부가 의심스럽게 된다.

2. 삼자교회에는 감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삼자교회를 방문할 때 말과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비밀리에 비디오에 찍히기도 하는 실정이다.

3. 현지 가정교회와 접촉한 때는 현지 안내인의 지도를 받고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해야 한다.

#### VII. 중국가정교회의 특징

중국가정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중국가정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중국 가정교회의 지도자는 과거 반동으로 몰려 경제적으로는 직장을 잃은 인텔리 출신이 많은 반면 몹시 가난하다.

2. 지도자의 세대교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 전세대와는 달리 제한적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말씀의 기반이 약하다. 따라서 이들을 올바르게 서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

3. 초기에 남부 몇 개 성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양상이다.

특히 중국가정교회의 불모지였던 만주에도 조선족 가정교회의 전도를 통해 폭발적 성장을 보였다.

4.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기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고자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특히 서구인들은 신임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구인들은 너무나 쉽게 드러나며 또 조심성없이 가정교회를 노출시킴으로 인해 그들을 무책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인들의 일한 영역이 더욱 넓혀진다고 여겨진다.

5. 말씀에 굽주려 있다.

이것은 상상을 넘어선 정도이다.

6. 전도에 굉장한 열심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성도들에 대한 양육은 대개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조만간 한중간에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럴 때 할국교회가 총체적으로 선교자원을 개발하여 중국선교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① 지도력 훈련에 힘써야 한다. 이제는 지나친 시설과 제도화의 선교의 함정에서 탈피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하라.

② 중국인들의 문화·언어·사회상황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현지 적응과 함께 대비하라.

③ 다각적 선교전략을 개발하라.

선교를 위해 여러 경로로 길이 열리게 될 때를 대비하여 여러 방편의 선교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④ 어떤 구체적 지역에 대한 명료한 선교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맞는 구체적 선교전략을 연구하라.

⑤ 중국내 미복음화 지역으로 남아 있는 족속에 복음을 전할 전략을 강구하라.

지금도 중국과 중국주변 곳곳에서 이틈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중국선교에 헌신하여 일하는 생명의 역군들이 있다. 이제 중국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일꾼을 보내 달라고 소리없이 외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소리를 듣고 준비하며 저 넓은 추수밭 중국으로 나갈 것인가? 

# 在滿 朝鮮人教會와 中國宣敎

-宣敎地 仁川의 지역적 기능과 관련하여-

金亨錫 교수(충신대학 역사학과)

## 1. 복음의 통로로서의 仁川

오늘 우리가 자리한 인천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가 1885년 4월 5일 이곳 인천을 통해 입국한 이래, 한국을 찾아온 대부분의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 입국하였던 복음 수용의 통로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위의 두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인 1884년 봄에 이미 다량의 성경(서울서만 약 5,000권)과 신앙서적들이 인천을 통해 국내에 보급되어 다수의 信者가 生成되었다는 점이다.

흔히 敎會史家들이 한국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설명할 때,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큰 특징을 "한국인들의 자발적 福音 수용과 자생적 敎人の 發生"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인 서상륜이 만주의 우장에서 활동하던 로스 목사로부터 부쳐온 성경을 찾아 성경반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일도 이곳 인천에서 비롯되었다. 이같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의 역사」(한국 기독교 역사연구소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82년 누가·요한복음이 간행되자 로스 목사는 10월에 서상륜을 대영성서공회의 한국 권서로 파송하였는데, 이때 서상륜은 평안도 일대에 다량의 복음서를 반포하고 이듬해초에는 上京하여 6개월 간에 걸친 전도사역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그는 여러 명의 개종자를 얻었고, 로스에게 서울로 와서 세례를 원하는 13명의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를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로스는 서울 방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대신 상해·제물포간의 기선 항로를 이용하여 1884년 봄에

다량의 한문·한글 성경과 소책자를 서상륜에게 보내주었고, 서상륜은 뮐렌도르프의 도움으로 이것을 받아 전도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때 서울로 와서 형으로부터 신약전서와 《덕혜입문》 등의 소책자를 받아 소래(松川)로 돌아온 서경조(徐景祚)는 신약을 몇 번 읽은 후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이후 주위에 전도하여 이듬해 1885년 연초까지 최소한 20여 명의 세례 청원자를 내게 하였다. 서상륜은 1885년초 봉천을 방문하여 국내에 있는 70여 명의 세례 청원자의 존재를 보고하고 다시 한 번 로스의 한국 방문을 요청한 뒤 의주를 거쳐 소래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20여 명의 구도자들을 지도하며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고 개인집을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늦어도 1886년까지는 예배처소를 마련하여 매주일 정기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한국교회의 출발의 전형이자 요람으로 불리는 소래 신앙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들 구도자 중 3명은 서상륜의 인도로 1887년 서울의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세례문답을 하고 1월 23일 언더우드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후 언더우드를 소래로 불러서 세례를 받게 된다.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들을 불러와서 세례를 베풀게 했던 한인촌과 의주, 그리고 소래의 신자들, 이들에 의해서 자생적 한국교회는 세워져 나갔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인천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미 선택된 땅에서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여주고 있듯(例: 모리아산 - 솔로몬 성전, 실로암: 기혼샘 - 히스기야터

널), 주님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 복음의 통로였던 인천에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를 배출케 하셨다.

한국인 최초의 선교사 홍승하의 행적 또한 「한국기독교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기독교의 디아스포라(diaspora, 해외 거주민) 선교역사는 미주지역으로부터 시작된다.

1902년 하와이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처음부터 교회가 배경이 되어 추진되었다. 즉 하와이 농업이민을 정치적으로 중개한 인물이 북장로회 선교사였다가 주한 미국 공사로서 신분이 바뀐 알렌(H. N. Allen)이었고, 이민모집을 주관했던 동서개발공사의 데슬러(D. Deshler)를 도와 한국인을 설득하고 나선 인물이 미감리회 선교사 존스(G. J. Jones)였다. 존스의 설득으로 인천 내리교회에서만 교인 남녀 50여 명이 이민을 자원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을 출발한 1차 이민단 12명은 교인들이 중심이었으며 인솔책임자 장경화, 통역 안정수는 모두 내리교회 직원들이었고 이들의 신앙지도를 위해 홍승하 전도사가 함께 동행하였다. 이처럼 하와이 초기 이민은 감리회 선교확장의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들은 농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1903년에 오아후섬 가후크와 와이알루아 농장에서 평양 남산현교회 출신의 홍치범 권사와 안정수·현순 등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설립했고, 호놀룰루에서도 안정수·우병길이 주동이 되어 현지 감리교회 감리사 피어슨(G. L. Pearson)과 교섭하여 1903년 11월 3일 교회를 설립했으며 초대 담임자로 홍승하 전도사가 부임했다. 그 후 각섬의 농장마다 교회가 계속 설립되어 1910년 당시엔 한인교회수가 35처에 달했고 한국인 권사가 27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韓國基督教史에서 仁川이 갖는 지역적 특징은 福音이 수용된 通路였음과 동시에, 최초의 海外宣教師인 홍승하를 배출한 복음전파의 통로이기도 하였다.

이제 宣敎地로서의 仁川의 기능에 관한 마지막 의미는 對中交易의 前進基地로서 갖는 中國宣敎

에 대한 使命이다. 최근 수년 간 韓中間의 貿易이 확대되면서 仁川은 이미 지난해 전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이어져 敎會들이 성장되고 宣敎役量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1988년 올림픽과 함께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1990년 9월부터는 중국과의 항로가 개설되어 매주 2차례씩 정기선이 왕래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朝鮮族으로서 같은 言語, 같은 文化를 공유하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宣敎使役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이다.

또 머지 않아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개설되면 복음전파의 통로로서 인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공 내방객들을 상대로한 새로운 선교의 사명이 인천에 부각되리라 생각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접촉해야 할 조선족들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이민과 교회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在滿 朝鮮族의 移民史와 교회 개척사

韓末과 日帝時代 滿洲에 韓인들이 移住하게 된 것은 대부분이 經濟的 이유에서 기인한다.

만주에 한인들이 이주하게 된 것은 朝鮮 後期에 계속된 흉년과 탐관오리들의 貪虐으로 인하여 北部의 농민들이 생존의 방편을 찾아서였으며, 그 후에도 이주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평안도와 함경도인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합방」후 역사적 조건을 무시한 토지조사사업 등과 같은 일련의 식민지 재편성을 위한 토지수탈정책(1912-1918)을 강행하자 전 농가의 반수가 되는 152만 7천여 호의 농가가 그들이 소유한 전경작면적의 반이나 되는 232만 5천 정보에 대한 현실적 점유권, 세습적 경작권을 빼앗기고 부정기 소작인으로 전락되자 농민들이 생활을 잃고 離農하여 북간도로 유리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南部 농민들의(특히 영남과 강원도 주민) 이주가 급증하였다.

다음 둘째로는 정치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한일합방과 3·1운동을 전후해서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종사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망명이 급증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다음 <표1>에 의하여 잘 이해할 수 있다.

〈표 1〉 年次別 間島 移住者數

| 연 도     | 이민자수  | 연 도  | 이민자수   |
|---------|-------|------|--------|
| 1910~12 | 46,77 | 1917 | 18,592 |
| 1913    | 10,63 | 1918 | 13,282 |
| 1914    | 13,50 | 1919 | 18,911 |
| 1915    | 36,62 | 1920 | 44,344 |
| 1916    | 22,21 |      |        |

또 간도 조선인 인구는 〈표2〉와 같다.

〈표 2〉 在間島 朝鮮人 人口

| 연 도  | 인구수     | 연 도  | 인구수     |
|------|---------|------|---------|
| 1907 | 71,000  | 1911 | 126,000 |
| 1908 | 89,000  | 1916 | 203,426 |
| 1909 | 98,000  | 1918 | 253,961 |
| 1910 | 109,500 | 1921 | 307,806 |

〈표1〉, 〈표2〉는 牛丸潤亮「最進間島事情」(朝鮮及朝鮮人社, 1927)에 의함.

〈표1〉에서 1910년 18년, 19년의 이주민 수가 한일합방과 3·1 운동을 계기로 이민이 급증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표1〉, 〈표2〉에서 1910년 1920년을 비교하여 볼 때 1920년의 이주민 수는 1910년 수의 4배에 이르고, 이주 한인의 인구 증가는 3배에 이른다.

그리고 셋째번 이유는, 朝鮮族 移民史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 사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주의하지 않는 바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끄는 바로 宗教的 要因이다.

韓國에 들어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美國系로서 建國 前 淸교도들의 신앙과 개척정신을 강조하고 理想社會로서 美國을 표방하였으므로, 당시 교인들 가운데 한국의 현실을 영국에서 고난당하던 淸교도들의 입장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신대륙(滿洲)을 찾아 理想社會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종교적 신앙 공동체 형성의 경우, 특히 북간도 지역 등에서 형성된 한국인 신촌락에 많았다. 북간도의 교회 형편을 보고하고 있는 한 기록에 의하면, “심산구곡에서도 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많으며, 구세동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조합하여 토지를 사고, 동명을 구세동이라 하고, 먼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후에 각각 자기 집을 건축하였으며,” “城津 출신 梁銀變이 가족 12호 72명을 인솔 이주하여 洞名을 藏恩坪이라

하고 1911년에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을 신축하였다.”는 등의 사실들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신촌락을 형성하여 洞名과 교회명을 기독교식으로 명명한 예는 이외에도 永生洞·樂園洞·明信洞·灰幕洞·希望村 등의 경우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에 관한 소식은 국내 敎界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지속적인 移住를 일으키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1920년에 작성된 감리교의 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다. 다수의 우리 젊은이들도 떠났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들이다. 한 교회에서만도 42명의 집단이 한꺼번에 만주와 간도를 향하여 떠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말에서 일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행해진 정치·경제·종교적 이주 결과 재만 조선족(韓人) 사회는 해방 직전 약 210만 명이 거주하던 韓民族史上 최대의 해외 이주집단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해방과 함께 환국하였지만 그곳에 영구 정착하였던 조선족들 또한 현재 180만에 달하는 移住民社會를 건설하고, 중국내에서도 인정받는 소수민족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 3. 在滿 朝鮮族敎會의 몇 가지 敎訓들

#### (1) 환난을 극복하는 교회상

만주 이주 초기 그들의 생활상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던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황무지에서 혹한과 싸우며 생존하기 위하여 苦耐를 감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자연적인 악조건보다 이들은 더욱 괴롭힌 것은 중·일 양측으로부터의 정치적 억압이었다. 특히 中國官憲들의 苛斂誅求가 심하였는데 ‘韓僑憤’이라는 세금을 설정하여 매년 봄에 강제 징수하는 등 각종 명목으로 착취를 일삼았던 것이다.

이 밖에도 중국인 지주와 일반 민중들의 학대, 마적과 비적들의 생명과 재산약탈 등 인위적인 위협이 잇달았는데 이런 기록은 총회록, 연회록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19년 총회록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간도 묵능현 팔면통교회는 106호에 1집 외에는 다 믿는 집이 됨으로 재미가 있는데, 도적의 위험이 심하여 교역자의 내왕이 곤란하던 중 마적 300여 명이 가옥 31호를 소화하고 교인 18인을 포살하고 피상자도 34인이요, 80여 인을 잡아간 고로 俄貨 40,000여 원을 주고 찾아 왔으며, 백봉수 목사의 가옥과 가정 전부 소화되고 성서공회 서적이 전소되고 동리가 떠나가는 고로 폐동이 될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상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는 自救的 노력은 이들로 하여금 敎會를 찾게 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의 신앙 열성은 강을 건너며 산을 넘는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남으로 6·7백 리나 떨어진 국내 교회까지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독자적인 교단조직을 갖추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의 감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들은 북간도에 교회를 세운 이래, 중국인과 일제에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간도노회가 독자적으로 조직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간도노회록 서문에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간도노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송하고 감사하리로다. 이 노회의 머리되시고 터가 되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신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하라 하신 말씀이 과연 다 응하는도다. 오순절에 임하신 불과 혀와 같이 갈라져서 이적기사를 나타내신 성신의 권능이 만주에까지 충만하여 간도노회가 조직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조선인민이 간도에 거주한 지 40여 년에 예수의 복음 듣지 못하고 그늘 아래 있을 때에...”

## (2) 자립, 선교하는 교회상

일제하 장로교 총회 전도부에서는 산동선교를 제외한 모든 설립된 교회에 대해서는 정치·교육

·보급일체를 자립하도록 하였는데, 재만한인교회의 경우 ‘자기가 새로 집을 건축하여 예배당으로 바친 일,’ ‘농장을 배치하여 새로운 이주민을 안접하고 경제적 자립을 꾀하는 일,’ ‘노회 산하 목사 4인, 조사 10인, 권사 3인의 월봉을 다 自當한 일’ 등이 총회록에 자주 보고되어 있어서 그들의 자립적 신앙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이같은 자립정신은 이미 선교 초기에 국내교회에 재난이 발생하자 오히려 구제헌금을 국내로 보내던 일로 미루어도 알 수 있다.

또 이들 韓人敎會의 선교에 대한 투자 또한 국내 교회의 경우를 압도하고 있었다.

1922년의 경우 당시 국내 교회의 교인 1인당 전도비가 평균 10전 미만(평북노회의 경우 교인 38,702명에 대한 총전도비 2,152원으로 1인당 전도비는 7전이며, 전남노회의 경우 교인 13,883명에 1,034원으로 1인당 전도비 8전이다)인 데 비해, 남만노회의 경우 22전(4,468명에 968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자립도와 선교에 관한 열의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長期的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교역자들을 양성하여 전만주에 대한 선교를 담당하려던 것이다. 당시 이들에게는 교역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보고서는 이런 실정은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북만일대에는 2·3천 리 넓은 광야에 우리민족이 內地와 俄領으로부터 다수히 모여드나 목자가 없는 양 같을 뿐이오니 그네들의 갈급은 교역자를 구하는 일이 오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오랜 시일을 끝다가 1942년에야 비로소 監理敎의 滿洲神學院이 開院되었고, 長老敎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聖經學校가 설립되어 初步的 敎育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졸업생 중에서 일부 선정하여 평양신학교에 就校하게 하였다. 따라서 절대적인 교역자가 부족한 현실로 인하여 성경학교를 수학한 학생들이 조사로 시무하였는데, 급속한 교세의 성장은 조사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어 교역자나 조사가 없는 교회들에서는 집회시 성경을 교육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를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도

널리 행해졌다.

在滿 韓人教會의 信仰修練과 宣敎熱意는 같은 시기의 국내 교회가 사회개혁과 문맹퇴치 등에만 관심을 기울여 본질적인 신앙문제에 소홀하였던 점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 (3) 봉사하는 교회상

#### 가. 의료선교를 통한 봉사

1910년대의 북간도는 아직 미개한 데다가 행정적으로 질서를 잡지 못했다. 더우기 본국에서 최저 생활을 하다 이주한 대부분의 한인들은 보건 위생을 염두에 둘 겨를이 없었으며 병이 들면 점을 치고 굿거리를 하였으며, 최악의 경우에만 한 방의를 찾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출산률을 초과하였고 유아의 사망률 또한 높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연길현 용정촌 캐나다 장로파 선교부 경영 제창병원은 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근대식 의료기관으로서 선교사들의 의료사업은 이주 한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당시 간도의 신식 의료기관으로는 용정촌에 간도병원과 두도구, 국자가에 일인 의사 각 1명과 국자가와 용정촌에 중국 관의원이 있을 뿐이었으나 이주 한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여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선교부의 제창병원은 1회 진찰료로 5전을 받았고, 약값은 통상 실가를 받았으며, 빈곤자는 감가하였다. 시료를 베풀 때에는 입원료, 왕진료 등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력 정도에 따라 결정하였다. 매일 평균 약 4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유아와 부인병 환자가 많았다.

이 병원의 설립은 1914년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바커(A.H. Barker) 부부가 용정촌 동산(세칭 영국덕이)에 내주하여 선교사업을 전개한 데서 시작되었는데, 은진중학교, 명신여자고등학교, 성경학교 등 교육사업과 병행하여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선교부의 부속사업으로 시작한 제창병원은 실비 진료와 빈곤자에 대해서는 무료 시료를 실시하였고, 순회 의료선교를 시행하여 오지에 있는 한인 이주촌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황청현 합막당은 이주 망명촌으로서 온 마을이 토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의료선교사 閔山海(Dr. Stanly Martin M.D)의 치료로 쾌유되었고 기독교 전도도 활발하여 구춘선, 계봉우, 김지승을 중심으로 한 합막당교회가 크게 발전하였다. 이 사실을 장로회 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先是에 교인 구춘선, 계봉우 등 십여인이 당지에 내하여 寓屬하는 중 예배당을 건축하고 김내범 목사가來하여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그 후에 선교사 박결, 부두일, 배례사와 목사 최덕준이 연속 임무 당회를 조직하다. 그런데 교인 중 40여인이 이상한 토질병으로 사한 고로 의사 민산해가來하여 위생에 적당한 식료를 지시함으로써 비참한 형편을 면하였고, 점차 영육간에 사업이 전진되고 있다.”

#### 나. 계몽운동을 통한 봉사

재만 조선인교회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①



방한중국교포들이 CCC회관에서 봉사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

일화배척운동, ② 금주·금연의 삼단운동, ③ 아편, 매음 금지의 사회정화운동, ④ 여성운동 등이 일어났다. 또한 교회는 민중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의 문제를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였다. 이들은 토론에서 경제적 자구책으로 일화배척운동을 결의하였으며, 주류, 아편, 축첩, 매음, 잡기(골패, 마작, 화투 등의 노름)를 금하는 삼단운동, 사회 정화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주색잡기를 금단하자는 간도 삼단동맹회는 간도 용정촌 기독교청년회의 활동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결성하였고, 매월례회로써 고명한 변사를 선택하여 삼단 이해에 관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북간도에서는 여성의 활동도 활발하였는데, 그 시작은 정신태, 이의순, 우봉운이 1913년 삼국부인전도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연합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삼국부인전도회는 북간도 최초의 여성고등교육 기관인 명동여학교의 설립에 공헌하였으며, 명신여학교 등 여성교육기관을 생기게 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또 용정교회 청년회는 토요일마다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는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청춘 남녀들이 모여 들었다. 당시의 교회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그들이 신사조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교회 청년회의 민중계몽운동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그들을 국가와 민족을 속박, 무지, 빈곤으로부터 구출해 낼 수 있는 역군으로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일이었다.

또한 교회 청년회들은 야구, 배구, 축구, 육상의 운동경기를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였고,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간도 명성운동부는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를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조직되어 많은 시합을 열고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하였다.

#### 다. 구제를 통한 봉사

3·1운동 이후 교인의 집단이주는 각 교회의 전도활동과 함께 1920년 대의 교회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신앙의 열기도 뜨거워져 그들은 중국인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중국금강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팔고하는 모습.

이같은 구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들로 나타났다. 영신동교회 영수 이전태 장로는 중국인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연보할 때 극빈한 중에서 늦기명을 있는 대로 연보하였으며, 김덕오 집사는 극빈한 중에서 土器 한 가마를 헌납하였으며, 함우룡 집사는 밭 일경을 연보하였고, 목사 김내범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가옥을 연보하고 그 외에도 많은 교인들이 전곡을 연보하였다는 것은 교회와 전도를 위해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내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용정교회와 국자가교회 등 많은 북간도 교회들은 토벌 당시 의복과 양식이 없이 엄동설한 도로에 쫓겨난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곡을 수집하였고, 그 가련한 정경을 기도로 간구하였다.

#### (4) 순교하는 교회상

재만 한인교회의 신앙적 성격은 開拓과 自活로 일관된 이주민들의 생활태도와 같이 自立的 性向이 강하였으며 교리적인 면에서 지극히 保守的이고 來世指向的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뜨거운 전도 열의와 순교자적 신앙 자세는 각종 위협과 환란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시키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



지는 일제의 탄압과 전만주에 퍼지고 있던 共產主義勢力의 反基督教運動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1930~40년대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1936년 만주의 한 목사가 보내온 보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역자가 된 나부터가 死를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死를 怯하고 어찌 이런 곳에서 主의 役事를 하러 오리오. 이곳 20여 년 전도에 순교한 사람이 많다 한다. 나는 主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하였다. 만주에 동포에게 전도할 사람은 선각자인 우리다. 일본 内地人は 무기로 만주를 개척하였고, 조선인은 호미로 황야를 연다. 우리 기독교인은 복음으로 개척하여야겠다. 그래도 평안히 사역하는 모국의 교역자들이여 북만에서 主의 사업으로 추운 것을 무릅쓰고 雪上으로 다니면서 전하는 것을 생각하라. 현재 추위는 영하 35도이다. 무서운 추위와 환란중 전도하는 교회는 날로 왕성한다.”

이처럼 재만 한인교회는 그들이 한국교회의 일부로서 모국 교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에도 신앙적 입장에서는 전혀 달랐다. 즉 국내의 교계가 당시에 社會改革 論爭과 神秘主義에 휩쓸려 교인이 감소하고 있을 때, 복음을 수호하고 선교에 힘쓰면서 도리어 모국교회를 향해 염려하고 있어왔던 것이다.

#### 4. 맺는말

1920년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는 3.1운동의 영향으로 큰 환란에 빠졌을 때 敎界의 進路를 제시한 새로운 里程碑였다. 특히 선교의 주대상이었던 만주는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통로로서 복음을 전해준 곳이다. 로스 목사에 의한 최초의 한글성서도 이곳에서 간행되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기지였던 만주에 우리 힘으로 되돌려 선교하였던 사실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며 시베리아와 산동선교 또한 아시아인에 의한 최초의 外地敎會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큰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재만 한인사회라는 독특한 이주집단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한 선교사업은 한국교회가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韓僑社會를 基督教 中心社會로 규정하게 하였던 것이다. 일제하 재만 한인사회는 여러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韓國史의 일부분이나, 敎會史에 있어서도 당시의 선교상황이나 순교자들의 활동상황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야말로 선교 1세기를 마무리하고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와 교회사학계에 맡겨진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지난날 재만 조선족교회의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난 초대교회적 특성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새로운 처방이 됨은 물론 한국교회에 맡겨진 중국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선교의 효율적인 선교방안으로 재만 조선족교회의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둔 분들에게 다음 몇 편의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 서광일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연구」,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保聖 1986)
- 채현석 「在滿洲 韓國人敎會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사 연구> 3호,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5)
- 김형석 「1920년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 만주선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사 연구> 9호,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1986)
-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II, (기독교문사, 1991)

#### \* 김형석 교수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양사전공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저서: 「동양의 역사와 문화」(공저),

「한국기독교의 역사」(공저) 외

# 외항선교와 중국선교

송시영 간사(한국외항선교인천지회)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 I. 서론

외항선교회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인천항으로 찾아드는 외항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회이다. 입항하는 선원들 가운데 기독교선교사 파송은 물론 선교사역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거나 제한적인 공산권, 회교권, 불교권 등의 나라에서 오는 선원들이 많다. 입항하는 선원들의 국적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중국선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 선원들에 대한 선교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여름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소련이 붕괴되면서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현재 소련의 복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많은 결실들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공산주의국가 중국! 그 나라는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나라들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조금이나마 열렸던 복음의 문을 점점 굳게 닫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선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국

선교사역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작은 부분에서의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외항선교사역이다. 그러면 외항선교사역 내용들을 살펴보고 중국선교의 가능성과 그 실제적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 II. 본론

### 1. 선원선교의 역사적 배경

선원을 향한 전도활동의 효시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드신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번 사도바울이 '배를 타고' (13:4,13, 16:11, 17:14, 18:18) 지중해의 여러 해안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전파와 교회설립의 사역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종교재판을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가던 도중 파선위기의 선상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음을 사도행전 27:21-26에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을 '선원선교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Dr. Roald Kverndal 의 학위논문 "Seamen's

Mission: Their Origin and Early Growth"에 나타난 자료에 보면 1553년에 영국의 Merchants Adventurers 선박회사의 총재인 Sebastian Cabot 씨가 처음으로 선장들에게 영국왕의 법으로 제정된 공식예배가 선상에서 매일 목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그 후에도 선원들에 대한 영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선장들은 선상에서 신앙적인 모임을 가졌고 항만에 정박해 있을 땐 종종 육상의 기독교인들을 초청하여 선상에배를 드리곤 했다고 한다. 해상교통 수단밖에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할 길이 없을 그 당시엔 선교사들도 선박을 이용하여 선교지로 떠났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선원들은 종종 그들의 선교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 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인내하고 수고한 사역의 결과로 원주민 개종자를 얻게 되면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오는 선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에 의해서 선교결과에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 선교사들에겐 이 선원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크나큰 도전이기도 했던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국내 선교부(Home Mission)는 항만도시의 슬럼가에서 희생되는 선원들을 발견하면서 선원선교의 자극을 받았고, 1779년 해군을 위한 성서보급사역이 시작되면서 1800년대에 들어와 선원선교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1818년에 런던에서



한국외항선교회의 선교사역을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

헌당된 '방주'라고 불리웠던 '물에 뜬 교회 (Floating Chapel)', 1822년에 인도 캘카타에서 설립된 'Bethel 협회', 1858년 영국교회에 의해서 창설된 'Mission to Seamen'에 이어 1840년대엔 감리교회도 자체교단 선원선교회를 설립하였고, 미국대륙에서도 각 교파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선원을 위한 선교회를 창설했으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도 항구마다 Seamen's Mission을 설립하여 복음전파와 선원들의 영적관리를 해왔다.

## 2. 한국외항선교회의 태동

한국외항선교회는 1974년 7월 4일 인천에서 창립되었다. 1973년 인천항이 현대식 갑문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교역에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인천항을 찾는 선원들이 28개국에서 약 2만 1천 명이나 되었다. 외항선원들이 험한 바다에서의 오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오면 반겨주는 것은 술집과 마음에 없는 웃음을 흘리는 접대부들뿐이었다. 선원들은 목숨을 바다에 걸고 일하며 번 돈을 유흥가에서 날려버리고 또 다시 공허한 마음과 빈털터리 주머니로 승선하여 험한 바다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생활을 계속해 갔다. 이러한 선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원들에 대한 복음전파의 책임을 절감하던 고 김의민 장로(예비역 장군)의 주선으로 시온감리교회 김용현 목사와 김학수 장로 등이 뜻을 합하여 기도하던 가운데 가칭 「외항선 선교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1973년초에 당시 성산감리교회 담임 최준옥 목사, 인천제일교회 원로목사인 이기혁 목사, 인천송도장로교회 이낙주 목사 그리고 인천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던 김광식 목사 등이 모여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년여 동안의 준비기도와 선교사역계획 그리고 범교단적 홍보활동 끝에 드디어 1974년 7월 4일 인천성산감리교회에서 경인 지역 목사, 장로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이기혁 목사, 회장에 최준옥 목사 총무에 김의민 권사, 협동총무에 최기만 선교사(현한국외항선교회 상임이사)를 임명하여 정식으로 한국외항선교회가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1885년 4월 5일 인천항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국이 90년만에 인천항을 통하여 복음을 역수출하게 된 역사적인 한국교회 선교의 시작이기도 하였다.

### 3. 한국의향선교회의 사역

#### (1) 국내사역

인천에서 시작된 외향선사역은 1976년 11월 부산에, 1981년 군산에 또한 동해, 여수 등에 국내 지부를 창설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항구를 찾아드는 선원들에게 복음전파의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외향선교사역은 선상에서의 사역뿐 아니라 선원들을 선교센터나 개교회로 초청하기도 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친선운동경기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외롭게 생활하는 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한다.

1991년말 현재까지 외향선교회의 선교팀이 방문 전도한 외국선박의 수는 13,868척이었고, 복음을 접한 선원은 199,464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한 선원은 23,356명이였다. 결심한 선원들은 7단계로 구성된 성경공부통신교재와 양육서신에 의해서 제자화되고 있는데 선원 양육 프로그램은 세계 900여 개 항구에서 사역하는 복음주의 선원선교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결심을 하지 않은 선원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물위에 선원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덧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에 대한 말씀이다. 항만에서 만나 복음을 듣고 떠나는 선원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 (2) 국외사역과 선교사 파송

외향선교회에서는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의 항만과 육지사역을 위해 파송하며 세계선교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항만사역을 위하여 남아프리카의 케이프 타운과 엘리자베스, 싱가포르, 그리스 아테네, 터키의 이스탄불, 일본의 요코하마, 북미주의 시애틀 등에 지부를 개설하여 선원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91년말 현재 장·단기 선교사 244명을 해외로 파송하였으며, 현재 84명의 선교사가 세계 곳곳에서 사역중이다.

선교사역을 계획 진행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물론 우리보다 먼저 세계선교사역을 시

작한 선교경험이 풍부한 국제적인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재정과 인력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사역을 극대화하고 있다. 협력단체로는 WC(WORLD CONCERN), PI(PEOPLE INTERNATIONAL), SIM(SUDAN INLAND MISSION), AIM(AFRICA INLAND MISSION), ICMA(INTERNATIONAL CHRISTIAN MARITIME ASSOCI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파송된 한국선교사들은 3년 내지 5년을 한 기간으로 하여 복음전도, 의료, 교육, 문서, 교회개척 등의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다.

### 4. 외향선교와 중국선교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지고 사실상 동·서 냉전의 마지막 긴장이 사라지면서 한국도 그동안 교류를 규제하던 공산권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91년도 한 해 동안 인천외향선교회에서는 952명의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322명이 결심하였다. 그 선원들 가운데 소련, 중국,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의 공산권국가에서 온 선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련과 중국선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항만을 찾아드는 중국선원의 현황과 선교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 (1) 외향선교회 중국선교 가능성

##### ① 인천항 중국선박과 선원현황

인천항에는 한 달 평균 25척의 중국선원이 승선한 외항선이 입항한다. 선박 한 척에 평균 30명의 중국선원이 승선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750여 명의 중국선원이 인천항에 들어온다는 통계가 나온다. 그 선박들은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10여 일씩 인천항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선박들이 머무는 동안 외향선교회에선 배에 승선하거나 선원들을 밖으로 초청하여 전도모임을 갖고 있다.

##### ② 중국선원 선교의 가능성

지금 중국은 소련연방공화국의 붕괴로 인하여 그들 공산체제의 존립에 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은 기독교가 그들의 체제유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약간의 자유로움을 느끼던 중국내의 그리스도인과 삼자교회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개방화되기 전보다 더욱 종교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선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항만에서의 중국 선원들에 대한 복음전도와 그 효과는 그 어느 지역, 어떤 사역방법으로 얻게 되는 결과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a. 선원들의 대부분이 가족과 이별하고 험한 파도와 싸우며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늘 대하는 남자동료들과의 생활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함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선교회의 남·녀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b. 중국선원들은 한국의 인천항뿐만 아니라 군산, 부산, 목포항 등에도 드나들고, 전세계의 300여 개의 항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찾아드는데 그들이 항에 도착할 때마다 그 항을 담당하는 선원선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문서 등으로 전함으로써 중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c. 선원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따라서 내세의 관심이 무척 많은 편이다. 이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중국선원들에 대한 사역은 현실점에 매우 효과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중국선교회인 것이다.

#### (2) 중국선원선교의 실제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국선원선교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어문선교회와 중국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사역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① 선상전도사역

매일 오후 2:00부터 오후 5:00까지 인천항만에 들어가 중국선박에 승선하여 전도하는데 개인전도 뿐만 아니라 판토마임, 중국어 복음송, 율동, 간증, 설교 등의 다양한 전도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사역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선교회 및 교회 초청전도사역

한국의 음식이나 다과 선물 등을 준비하고 선원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다. 중국선원들에게는 오래 기억될 모임이 될 수 있다.

##### ③ 관광안내 및 운동경기

중국선원들의 대부분이 서울시내의 명소와 올림

픽 경기장 관광을 요청한다. 그들을 자동차 또는 전철로 안내해 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선교에 있어서 문제점은 언어의 문제이다. 중국선원들 대부분이 영어가 능통치 못하고, 현재 외항선교회내에는 중국어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Communication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문선교회와의 협력사역이 필요하다.

#### Ⅲ. 결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23~30)

외항선원들은 위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이 녹는 것 같은 바다의 위험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원이었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로 부르셨다.

우리도 중국선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중국선원들 가운데서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친구와 이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중국복음화를 앞당겨 갈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중국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외항선교사역을 통한 중국선원전도 및 중국복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중국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

주지호 목사(극동방송 중국어방송담당)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인에 대한 특징이 바로  
이 만리장성의 건축에서 보는 慢慢地가  
정확한 것이다. 중국선교에 있어서는  
넉넉한 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 I. 중국인의 특징과 교회선교의 대책

인천은 아시다시피 한국에 복음이 수용된 통로였으며 현재 다시 중국과의 교류통로로서, 특히 북음전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날 한·중관계 역사를 통해서 인천에 화교촌이 형성되었고, 비록 지금 그들의 다수가 미국이나 대만 등지로 이민을 가게 되어 많이 위축되어 있으나 아직도 약 2,000명에 달하는 화교들이 남아 있으며 교회로서는 한 교회가 남아있다.

1981년 이래 지금껏 그들은 전담 교역자가 없이 성도를 중심으로 장년층이 30~40명 정도, 주일학교 청년부가 약 60~70명 정도 모이고 있다. 이 화교교회의 큰 장점이라면 '끈기'를 들 수 있다. 비록 적은 숫자요 느린 속도지만 꾸준히 출석하면서 성장하는 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끈기가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아무리 부흥 집회를 열고 복음을 전해도 십사리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함께 동역하는 한국인 친구들은 매우 답답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다. 한국인이 단거리경주에 강한 것에 비해 중국인은 장거리 마라톤에 강하다고나 할까?

## 1. 長城(만리장성)

만리장성은 동쪽의 河北省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산서(山西), 내몽고(內蒙古), 섬서(陝西), 영하(寧夏), 감숙(甘肅) 등 6개 성에 걸쳐 있고 전체 길이가 6천Km로 일만 이천 리(華里)이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시대에 짓기 시작하여 진시황제 때 완성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확장하여 명나라 말년까지 2천년 동안 건축을 하였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인에 대한 특징이 바로 이 만리장성의 건축에서 보는 慢慢的(천천히)가 정확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선교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하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2. 역사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한국보다 1,200년이 빠르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제1차 唐나라의 景教: 당태종 貞觀 9년(서기 635년), 선교사 阿羅本.

제2차 元나라 也里可溫과 천주교: 서기 1246년 로마 천주교가 첫번째 정식으로 중국황제와 접촉.

제3차 明나라 말년의 천주교: 1551년 예수회 沙勿略(Xavier)이 중국에 옴.

제4차 淸나라 기독교: 1807년 Robert Morrison이 최초로 중국에 온 정식 기독교선교사.

이렇게 기독교는 1,300년 동안 4번이나 중국의 문을 두드린 결과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인의 특징인 '慢慢的'가 정확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했을 때 오직 하나의 돌멩이로 명증시켜 승리했지만 그의 물매 주머니 속에는 나머지 4개의 돌멩이가 여분으로 더 있었던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여유와 준비성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국선교에 있어서는 넉넉한 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 3. 대책

선교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1) 갑자기 믿는 것(Sudden Conversion): 사도 행전 2장 등에서 보는 예와 같은 경우.

(2) 무의식중에 믿는 것(Unconscious Conversion): 대개 기독교 가정의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3) 점진적으로 믿는 것(Gradual Conversion):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예수님을 믿는 가장 보편적인 과정은(The most common ways in which conversion occurs) 점진적으로 믿는 것이다(Gradual Conversion).

중국 민족의 특성으로 Wheaton 대학원의 Dr. James F. Engel의 Engel Scale을 선교대책으로 삼으려 한다.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과정은 중국선교에 적용하면 좀 더 구체적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신론 사회의 중국선교에 있어서는 위의 도표의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가는 일이 필요하리라 본다.

### 영적인 결단의 과정

이 영적인 결단의 전과정의 모델은 영적성장의 단계를 나타내준다.

| 하나님의 역할 |     | 전달자의 역할 | 인간의 반응           |                                                            |
|---------|-----|---------|------------------|------------------------------------------------------------|
| 일반계시    |     |         | -8               | 절대자에 대한 자각                                                 |
| 확 신     | 선 포 |         | -7               | 복음에 대한 약간의 지식                                              |
|         |     |         | -6               |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
|         |     |         | -5               | 복음의 개인적 연관성에 대한 파악                                         |
|         |     |         | -4               |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         |     | 결신의 초청  | -3               | 믿게 될 때의 현실적 문제점 인식과 극복                                     |
|         |     |         | -2               | 결단                                                         |
|         |     | -1      |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 |                                                            |
| 증 생     |     |         |                  | 새 생명                                                       |
| 성 화     | 추 종 |         | +1               | 이미 행한 결단에 대한 평가                                            |
|         |     |         | +2               | 교회 안으로의 편입                                                 |
|         |     | 성 숙     | +3               | 생각과 행동의 성장<br>· 하나님과의 연합<br>· 청지기직<br>· 내적 재생산<br>· 외적 재생산 |
|         |     |         | 영원               |                                                            |

## II. 초대교회의 역할이 중국선교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려 할 때 사도 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어떤 변치 않는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선교에 적용해 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 가정 안의 교회(Household Evangelism)

초대교회는 가정 안의 교회였다. 즉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다. 왜냐하면 교회건물이 없었고 조직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 가정자체가 교회였다. 이는 오늘날 가정이 교회 안에 분산되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 중국교회의 대다수는 가정교회이다. 이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 바로 이런 비조직적인 점이 큰 생명력을 발휘해 확산되어 나갔다.

### 2. 핵심있는 메세지(Christ-Centered Message)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필요성을 전했듯, 오늘날 중국인들에게도 철학이 아닌,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어야 하는가를 설득력있게 전해야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풍부한 전래의 영적 자원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은 왜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이냐고 묻게 될 것이다.

### 3. 사람은 모두 전도할 수 있다(The Informal Missionaries).

구약시대와는 달리 초대교회로부터 비로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조직을 통해 전도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중국선교에 있어서도 어떤 격식적 선교에만 매일 것이 아니라 여러 활용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전도, 대중매체(TV, 방송문서)를 통한 전도, 무대매체(판토마임, 복음적 영화상영, 노래, 전통예술)를 통한 전도 등이 그것이다.

### 4. 성령충만한 표현(Spirit-Filled Character)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충만한 모습이었다. 성령충만은 외적으로는 은사요,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을 의미한다.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그 어느 선교지보다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한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중국언어 숙달이다.

이것은 중국선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도구이다. 이 언어를 통해 중국의 문화, 즉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배우되 적당히 배우지 말고 철저히 배우기를 권한다. 한국인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인천지역에서라면 중국어를 배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

## III. 참고문헌

본세미나는 아래의 서적들을 참고로 한 것으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1. Engel, James F. The Conversion Decision Process and Missiological Strategy: An Empirical Analysis, Hong Kong: 1988.
2. Engel, James F. Contemporary Christian Communications: It's Theory and Practice, Nashville, New York: Nelson 1979.
3.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2.
4. Wagner, c. peter. The Third Wave of the Holy Spirit: Encountering the Power of Signs and Wonders. Ann Arbor, Michigan: Vine Books 1988.
5. 각선회, 교회의 임무(Mission: The Task of the Church), 소망교회 1990.
6. 각선회, 교회의 갱신과 선교의 책임, 예장총회 창립 80주년 기념대회 제1강. 극동방송 1992. 5. 27 방송프로.
7. 주지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극동방송: 중국선교자료집 1991.



## '92 중국선교대회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라는 스가랴 4장 6절을 주제 말씀으로 하고 “중국선교와 인천”이라는 주제로 중국어문선교회 주최, 제1회 중국선교대회의 장을 열었다.

처음하는 선교대회이고 보니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든 면에 서툴렀다. 선교대회 개최일 일주일 전부터 우리 스텝진들은 하루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선교대회 장소는 주제와 걸맞게 인천성광교회선교센타(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사무실이 있는 곳)로 정하였다.

대회 첫날인 6월 5일 오후 5시, 인천성광교회 선교센타에 스텝진들 도착. 20여 분 정도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선교회 간사들과 인천지부 형제자매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를 하고 나서 등록, 안내 등등 각기 맡겨진 일을 준비하기 위해 흩어졌다.

7시쯤 선교센타내에 식당에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 먼저 장혜숙 자매의 찬양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역 형제들의 기타 반주와 이날을 위해 특별히 봉사한 한현주 자매의 피아노 반주가 어우러졌고 참석자 100여 명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8시 30분에 박진국 대표간사의 사회로 회예배를 드렸다. 박문식 전도사의 뜨거운 기도예 이어 서울대 중국어성경반의 아름다운 찬양에 아마 하나님도 만족한 미소를 지으셨으리라. 이어서 인천성광교회의 양치호 목

사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의 설교말씀이 있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말씀을 본문으로 유머러스하면서도 강한 메세지는 우리의 마음을 진하게 감동시켰다.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은 시각인 10시에 총신대 김바울 교수의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선교와 과제”에 대한 강의와 중국선교 영상보고회가 있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슬라이드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보고나니 아니 벌써 12시가 넘어 버렸지 않았는가? 예정된 시간이 지났지만 뜨겁게 달구어진 가슴으로 그냥 꿈나라로 갈 순 없다. 김광석 부총무의 인도로 기도제목을 조목조목 들어서 중국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다 마치고 나니 1시 반이 되었다. 아 졸려!

그런데 또 다음날 준비를 위해 스텝들은 다시 선교센타 306호로 모이란다. 6일 아침 QT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상의하다 보니 2시 30분이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조장 모임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날 당해서 준비를 하다니. 처음 개최하는 것이라 역시 시행착오가 많다.

6월 6일 아침 6시 기상. 선교센타에서 새로 마련한 새 이불을 덮고, 깨끗한 새 방에서 잠을 자니까 잠이 꿀맛 같아 일어나기가 싫다. 특별히 이부자리까지 신경써주신 선교센타측과 양치호 목사님께 謝謝. 옆에서 자고 있던 자매들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벌써 일어나 양치질을 하러 나가고 없다. 역시 젊

은 애(?)들은 다르구나.

조별로 모여서 “달란트 비유”(마25:14~31)로 아침경건회를 가졌다. 모두 낯설은 얼굴들이라 서먹서먹한 분위기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께 무엇인가 돌려 드려야 할텐데.

오전에는 충신대 김형석 교수께서 “조선족 이민사 및 교회개척사”라는 제목으로 차분히 말씀을 전해 주셨다. 중국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고 중국에 들어가서는 그 나라 법은 어겨도 되는 것인냥 마구 행동해 오하려 누를 끼치고 온다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선교해야 한다고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 충고. 맞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친교의 시간에는 새터교회 박성아 목사님께서 재미있게 진행해 주셨다. 찬양과 율동, 게임, 조별로 이름 외우기 등등 너무 웃어서 주름이 몇 개 늘었는데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면 변상해 달라고 해야지.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 30분부터 외향 선교회의 송시영 간사가 “외향선교와 중국선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셨다. 인천항에 한 달 평균 25척의 중국선원이 입항한다. 선박 한 척에 평균 30명의 중국선원이 승선해 있는데 한 달이면 750명 정도의 중국선원이 인천항에 들어온다. 저 고기를 낚을 준비된 어부는 누구인가?

참석자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얻어 돌아 가기를 원하는 주최측의 욕심(?)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그래도 좀 쉬어가자. 강의실 뒷쪽에 준비된 간식을 먹으면서 개별적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에 중국복음선교회 찬양팀이 많이 준비한 듯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어서 극동방송 중국어 담당자인 주지호 목사님께서 “중국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에 대해 마지막 강의를 아주 유머러스하게 해 주었다. 이

날 이후 난 주 목사님이 좋아질 것 같다.

중국선교를 위해 언어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어떤 중국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로 들었다. 그 목사님께서 “뭐니뭐니해도 똥(돈)이 문제입니다.”(폭소)라고 하셨단다.

그런데 더 재미있던 것은 주지호 목사님께서 중국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면도칼로 고목나무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면도칼을 모아 토끼(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잘라야 합니다.”(폭소)라고 하셨다. 정말 언어가 문제다. 하나님 우리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원래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지나 박진국 대표간사의 사회로 폐회예배를 드렸다. 인천지부 형제 자매들의 특송에 이어 “선교할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인천화목교회 최병국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있었다. 인천에 들어오는 교포들 중에 친척을 찾지 못하는 교포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시켜주면서 주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이날도 닭장을 짓다가 오셨다는 최 목사님의 검게 그을린 얼굴 그 자체가 메세지다. 그래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메세지이다.

이요한 총무님의 인도로 가진 헌신의 시간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다짐한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최병국 목사님의 축도로 폐회예배와 더불어 선교대회를 오후 6시 30분에 마쳤다. 대회기간이 너무 짧았던 아쉬움. 주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대회를 통해 만남을 갖고 교제를 시작하자 마자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다음 선교대회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각자의 집으로 뿌듯한 가슴을 안고 발걸음을 옮겼다.

再見! 

(글·석은혜)

#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중국선교

마중가 교수(한림대 중국학)

우리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해하려 할 때 반드시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 덩소평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은 자본주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내지는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는, 절실한 생존 문제가 달린 자구책으로서라는 점이다. 이는 "개혁 없이는 집단 자살이다"라고 천명한 덩소평의 말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여기서 잠시 최근 덩소평의 南巡講話로 야기된 보수와 혁명세력의 갈등의 노출과 덩소평을 정점으로 한 개혁세력의 승리를 보면서 덩소평이 거처온 노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덩소평은 오독이로 불릴 만큼 중국의 거센 정치 풍랑 속에서도 동게 살아남아 중국 정치역사의 성공과 실패의 산 증인이자 몇 안 남은 혁명세대의 원로 중의 원로로서 중국정치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56년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雙百운동을 거쳐 1957년 反右派 투쟁의 와중에서 덩소평은 일시 위축을 겪게 된다. 이 때의 정풍운동에서는 반제애국운동으로 많은 교회가 타격을 받고 교계의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해외 화교의 연결된 목사들은 그런 대로 안전하였다. 이는 항일운동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자들이 화교였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중공정부는 해외에 명망이 미치는 인사에게 있어서는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1965년 姚文元의 「海瑞罷官」을 신호탄으로 전개된 문화대혁명의 와중에서 덩소평은 또 한번 좌절을 겪게 된다. 그러다가

1973년 4월 다시 한번 주은래의 온건노선 영향으로 당직에 복귀한다. 그러나 1976년 주은래의 죽음으로 야기된 제1차 천안문사태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어 재차 실각하게 된다. 그러나 1978년 모택동의 사망으로 인해 다시 성공하여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4개 현대화의 큰 기조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덩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은 사실상 경제 운용의 구조적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였는데 그것은 집단 농장체제의 해체와 개인농토의 허용, 농토 사용권의 계승 등이다. 그러나 덩소평을 비롯한 당국자의 희망한 대로만 되지 않고 그 기대상반의 효과가 도처에 나타나게 되었다.

첫째는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만 파는 등 중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둘째는 개방에 따른 해외 기술과 문물의 도입으로 필연적으로 인민의 가치관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셋째는 해외 유학생 등을 통한 인권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호요방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1989년의 2차 천안문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종신제 폐지, 당정분리, 기구축소 등과 같은 정치체제 개혁의 요구에까지 이르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덩소평의 남순강화는 사실상 보혁의 줄다리기의 중앙에서 있는 덩소평의 결정의 지남표이기도 하다. 남순강화 이전에 덩소평은 남부와 북부의 중간 지점인 공자의 고향 곡부에 1년 간 칩거하면서 중립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상해, 주해 등 남부의 발전된

동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은  
 사실상 경제 운용의 구조적 변화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였는데, 동소평을 비롯한  
 당국자의 희망한 대로만 되지 않고  
 그 기대상반의 효과가 도처에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지역을 돌아봄으로써 개혁파에 대한 지지를 몸으로 보여 주었고 그것의 문자화가 남순강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북경을 중심한 북부의 정치적 기득층의 반발도 있었으나 결국 개혁파의 승리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장강 유역 28개항의 개방결정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선교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당국의 선전구호를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로 보장된다 해도 당의 중앙문건으로 수시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을 호소하며 중공당국자들이 과거의 전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해도 아무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선교는 먼저 인적 관계부터 앞세울 것을 권한다. 다시 말하면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계를 맺음 없이 선교부터 하려다가는 실패하기가 십상일 것이다.

셋째 중국인들이 마음을 열어주는 대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이는 일이 필요하다. 만약 중국인이 그들의 가족관계 직장일들을 세세히 얘기해준다면 상대를 친구로 여기는 증표이다. 그런데 상대가 자기의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넷째 공개적 선교보다 찬양 등을 통한 선교가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일단 들어가서 전도하라. 연변의 간도에는 함북출신교포가 길림과 요녕성은 평안도 출신의 교포가 흑룡강성에는 영호남출신의 교포가 밀집해 있는데 주로 철도역 주변으로 곳곳에 살고 있다. 이들을 기차여

행을 통해 역마다 내려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종교정책에 대한 명암적 연구를 선행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이제는 선교가 중국의 일단인 교포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중국인 선교를 목표로 삼을 것을 권한다. 중국의 중심부인 북경을 비롯 광대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선교를 해야 이것이 진짜 중국선교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중국선교에 일생을 바칠 결심을 하라. 중국인에게 있어서 상대의 이름을 믿어 주는 데도 1주일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선교에 있어 며칠 혹은 몇 달내에 효과를 얻겠다는 망상을 버리라. 십 년 혹은 몇십 년 길게 잡아 평생을 헌신하겠다는 자세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중국선교다.

앞으로 중국은 필연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도 이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동소평을 비롯한 원로 등이 자연적으로 소멸된 후에 이들을 대체할 만한 권위 있는 집단이 없으며 태자당과 같은 그룹은 원로들의 후광이 사라지면 별 큰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희석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국선교의 전망은 보다 밝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장차 십수 년내에 중국은 종교에 대해 보다 개방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를 전망하며 중국선교는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6월 29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본선교회 주최로 개최한 중국선교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창성교회를 가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성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곳 교회 담임목사로부터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씀 한마디였다. 창립된 지 불과 몇 년 안되는, 재적 교인 120명 정도의 작은 신생교회가 신도수가 불과 30명도 채 못되는 시점에서 선교부터 시작, 러시아, 터키, 케냐, 영국 등에 선교사를 파송지원하며 현지교회를 돕고, 중국, 케냐 등 외국사역자들을 초청하여 대교회도 하기 힘든 현장목회 훈련사역을, 고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는 거짓말 같은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선교, 구제, 장학, 개척교회지원 등에 쏟아붓고, 목적 헌금의 용도가 분명히 독립되어 관리되는 신기한 교회, 나눔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 어디든 나누어 준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교회가 바로 창성교회였다.

관악구 봉천 11동 긴 시장 골목 끝머리 후미진 곳에 위치한 창성교회를 찾아 갔을 때 외관상으로는 상가건물의 2.3층에 간판을 내걸고 있어 어느 개척교회의 그것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기대는 초반부터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지니기 쉬운 통념과 상식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통쾌감마저 결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우선 외부와는 달리 본당, 교제실(식당), 사무실, 기도실, 현장목회훈련을 위한 숙박시설 등 깔끔하고도 짜임새있는 공간활용과, 특히 작고 아담하지만 온통 책으로 뒤덮힌 목양실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담임목사를 통해들은 그의 목회사역과 가정 삶의 단편들이 그러하게 된 실체들이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이 작고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그 참 매운 맛을 낼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대답 가운데 나름대로 다음 몇 가지로 그 원인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 첫째가 담임목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럿 중의 하나가 아닌 하나로서의 하나’라는 목회자의 뚜렷한 목표와 실천의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창성교회의 영구표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실제사역의 출발과 목표로서, 선교는 그 나눔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는, 재정의 어려움을 절대로 강단에서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직 기도로만 해결한다는 것으로 창성교회 성도 누구에게나 공유된 실증적 간증이 무수하다고 했다. 셋째, 교역자와 성도가 종적인 관계가 아닌 횡적 동역자의 관계로서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듯 싶었다. 따라서 재정집행에 별다른 잡음이 없다고 했다.

넷째, 나눔의 추진력은 말씀의 교육에서 얻어 지므로 성경공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적극적이고도 전폭적인 헌신’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아무런 담임목사의 간곡한 부탁도 부탁이려니와 모든 것을 알린다는 것이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정황을 일일이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창성교회의 정신에 설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장래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삼자인사의 시각에서 본 현재 삼자교회의 걱정과 문제

黃維軒  
(연구부 제공)

### I. 머리말

금년(1992) 1월 6일 북경에서 끝맺은 중국기독교 제5회전국회의는 중국교회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한 전국적인 성격의 회의였다.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현단계의 중국교회가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를 잘 관리해야 하"는 단계로 여겼다. 그리고 이것은 삼자교회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 "대방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자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와 뚫고 나가야 할 난관은 쉽게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첩첩이 쌓여져 있다.

중국기독교협회(이하「기협」이라고 간단히 칭함)의 부회장 심이번(沈以藩)이 중국기독교삼자 애국운동위원회 40주년을 기념한 강연〈靈柱火柱四十年(불기둥 구름기둥 40년)〉의 마지막 부분에서 삼자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였다.

심이번은 기협의 부회장이자 중국기독교삼자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지적해 낸 문제는 보편성과 절실성 및 근거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본문은 심이번이 삼자교회에 대해 지적한 문제를 통해서 삼자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걱정과 문제를 보다 깊이 살펴보고 시도하였다.

### II. 내외부의 곤란

삼자교회의 내부인사들에게 있어서는 심이번이 지적한 "외부의 심각한 침투와 파괴활동",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 "각종 이단사설이 퍼지는 상황"의 이 세 가지 항목은 실로 삼자교회가 직면한 "내외부의 곤란"이다. 왜냐하면 위의 세 항목은 공히 삼자가 아닌 삼자의 적대분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삼자의 시각

에서 보면 삼자의 중국교회건설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회와 국가의 질서에 해로운 것이다.

#### 1. 외부의 심각한 침투와 파괴활동

"외부의 심각한 침투와 파괴활동"은 어떻게 삼자교회의 곤란이 되는가? 남경 금릉신학교 교수인 汪維藩가 "침투"에 대해 내린 정의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왕씨의 정의를 통해서 어떤 해외로부터의 "선전과 활동"중에 이른바 "애국애교회"에 방해되면 모두 "침투"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자회인사들은 많은 외부의 침투에 대하여 이미 이른바 "침투방법과 활동"을 파악하고 있다. 삼자회인사가 알고 있는 방법과 활동은 적어도 아래의 것들이 포함된다. (1) 방송전파와 종교서적 밀반입을 통한 종교전파이다. (2) 학술교류를 이용하여 중국에 교사를 파견하여 중국에서 교직을 맡게하는 것이나 장학금을 제공하여 중국유학생을 끌어들이는 등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청년에게 전도한다. (3) 공장설립이나 학교설립, 병원 건설 등의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선교거점의 설치를 은폐한다. (4) 여행이나 친척방문을 통해서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한다. (5) 중국교회의 자주독립을 간섭하며 종교활동을 방해하여 반국가, 반정부 지하세력을 양성하고 불법 조직을 만든다. (6) 해외종교세력은 경비제공을 통해서 중국의 애국적인 성직자들을 끌어들이고 분열시킨다. (7) 중국의 국경지역이나 소수민족지역에 침투한다. (8) 해외에 기구나 단체를 조성하여 비거주선교사를 파견하여 유동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9) 국외에 각종 신학대학을 설립하

여 침투인원을 양성하며 내지에 잠입하여 활동하게 한다. (10) 내지에서 “아지신학원”을 설치하여 “반동간부”를 양성하고 각지로 잠입시킨다. (11) 국내각지에서 청년들을 구슬려 해외로 초청하여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훈련시켜 침투도구화 한다.”

삼자인사들은 외부의 침투의 목적이 중국을 반대하고, 중국교회를 반대하며 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제도를 공격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sup>2)</sup> 아울러 삼자를 멸시하고 신도들을 피어 삼자를 이탈하도록 하며<sup>3)</sup> 중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중국기독교인과 수많은 인민과의 단절을 파괴하며 인민이 정부와 중국공산당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며<sup>4)</sup> 외부의 침투와 파괴활동이 국내인에게 영향을 끼쳐 종파적인 활동과 분열을 하게 한다<sup>5)</sup>고 생각한다. 또 신도들을 삼자애국의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신도들이 조국의 사개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현대화)건설에 대하여 냉담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이런 세력이 미치는 곳마다 교회에 분열이 생겨난다.<sup>6)</sup> 어떤 지역에서는 삼자의 사업에도 위협이 되기도 한다.<sup>7)</sup>

이상으로부터 삼자교회 내부인의 관점으로 볼 때 “외부의 침투”가 참으로 곤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은 솔직히 말해 삼자교회가 매우 곤란하게 느끼는 일이다. 삼자인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에는 아래와 같은 활동성질과 내용을 가진다고 말한다. (1) 속여서 돈을 빼앗거나 부녀를 욕보이거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인심을 혹하게 하거나 사회치안을 파괴하는 행위 (2) 신도들이 당과 정부의 지도에 항거하고 삼자애국운동을 파괴하도록 극력 선동함 (3) 전도인을 함부로 임명하여 사방으로 스며들게 하여 불법적이거나 반동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그 중에는 이미 조직화된 것도 있다. (4) 해외적대세력과 제휴하여 지원을 받고 행동하는 것<sup>8)</sup> 등이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삼자인사에게는 이런활동이 실제로 군중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사회치안을 어지럽히며 국가통일과 민족단절을 파괴하며 아울러 교회의 분열운동을 하고 삼자를 반대하며 중심에서 떨어진 범죄, 파괴행동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 수 없다.

또 자체적으로 임명한 전도인 개인이나 그 활동 및 조직은 모두 다 각종 범죄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만약 한 신도나 집회점이 삼자애국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역시 어떤 기회에 “삼자애국운동을 파괴”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쓸 수 있으며 그의 활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이 되게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왕유번은 우려를 표시하여 말하기를 “장차 허가를 얻지 못한 기독교활동

여 말하기를 “장차 허가를 얻지 못한 기독교활동

1) <해외적대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 《中國與教會》, 第83期, 1991.5~6, P.8 <삼자회 4회, 전국기협 2회 상무위원회 제2차전체위원회(확대) 회의 상에서의 업무보고> 《天風》, 1990.11 P.13.

2) 曹聖潔: 《中國教會建設與神學生培養》, 《金陵神學誌》, 第8期, 1988.4, P.11

3) 호박재, 고학성: <관어 “삼자”원칙적일사사고>, 《天風》, 1991.12, P.1

4) <삼자회 4회, 전국기협 2회 상무위원회 제2차 전체위원회(확대)회의 상에서의 업무보고>, 《天風》, 1990.11, P.13.

5) 熊眞沛: <中國基督教三自愛國運動與我>, 《天風》, 1990.9, P.14

6) 沈承恩: <晉冀行獲得的啓示>, 《天風》, 1990.2, P.10.

7) 劉清芬: <從訪問晉冀兩省教會看怎樣辦好教會>, 《天風》, 1990.1, P.17

8) 주 4) 참조

장소는 일률적으로 지하세력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일률적으로 “불법을 행하고 위법을 행하는”것으로 보여져서 해체되거나 단속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타격·제지·단속당하는 허가받지 않은 가정교회나 자칭전도인 및 신도는 기독교가 비교적 흥성한 하남성(河南省), 절강성(浙江省), 복건성(福建省), 산둥성(山東省), 광둥성(廣東省), 강소성(江蘇省) 등지에 두루 퍼져 있으며 기타지역의 농촌에서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삼자인사가 국내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에 직면할 때, 진짜로 국가형법을 어긴 범죄활동을 단속하는 데 곤란을 느낄<sup>9)</sup> 뿐 아니라 더욱이 불법, 위법을 일률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삼자의 인사와 집회점을 구분지어 처리하는 데 곤란을 느낄 것이다.

### 3. 각종 이단사설이 퍼지는 상황

국내의 기독교가 신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각지에서 “각종 이단사설이 퍼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기독교가 흥성한 농촌지역에서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러한 “각종 이단사설이 퍼지는 상황”은 실로 삼자전도인과 자원사역자들의 곤란이 된다.

먼저 삼자인사는 이단사설의 난무는 교회신도의 증가는 매우 빠른 반면에 목사나 지도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sup>10)</sup>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기꾼”은 많은 신도들을 꺾어서 황당무계한 이론이나 이단사설을 선전한다.<sup>11)</sup> 이렇게 볼 때 “전도인의 배양”은 “이단을 단절”시키는 가장 관건이 되는 일이다.

삼자인사가 가장 자주 들먹이는 이단으로는 “호합파(呼臧派:李常守라는 윗치만 나의 제자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오순절계통의 교회)인데 호합파는 정치적으로 반동이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sup>12)</sup> 호합파는 각지에서 신도를 가장 많이 획득하였다.

호남성(湖南省)의 침주 지역은 일만에 가까운 신도들의 8할은 “호합파”거나 “전범위교회(全範圍教會:重生派라고도 하며 한국에서는 구원파로 불리기도 한다.)”<sup>13)</sup> 이밖에 “중생파(즉 전범위교회)”역시 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진다.<sup>14)</sup> 최근에 비교적 심각한 이단은 강소성(江蘇省)의 영영교(靈靈教)<sup>15)</sup> 그 영향은 강서성에 만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심지어는 신강성(新疆省)에도 영영교의 신도가 있다.<sup>16)</sup> 특히 두드러진 것은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출현하고 있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 사건이다.

삼자인사는 이러한 각종 이단이 혼란현상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진한 신도를 꺾어 범죄하게 하고 사회안전을 해치며 “삼자는 큰음녀이다.”, “삼자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삼자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삼자인사는 교리 때문만이 아니라 더욱이 “삼자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단호히 배격하고 제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단 문제는 농촌의 삼자교회가 더욱 요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 Ⅲ. 긴박한 문제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 “자양(자급의 의미)방면의 곤란”,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문

9) 최근의 일종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내걸고 자행하는 각종 범죄활동”은 《明報》 1992.3.18 일자를 참고 바람

10) 주 2)와 同

11) 文永生:〈黃土高坡上的教會〉,《天風》, 1990.12, P.26

12) 주 6)과 同, 이 밖에도 許長泰:〈山東教會由亂到治的經驗〉,《天風》, 1991.2, P.5.

13) 〈湖南教會近況〉,《橋》, 第45期, 1991.2, P.5

14) 安鴻剛:〈“重生派”的活動應該抵制〉,《天風》, 1990.1, P.30

15) 韓彼得:〈關於非法組織“靈靈教”的情況介紹〉,《天風》, 1991.2, P.6~8

16) 同上.



서사역"의 세 가지 사항은 바로 삼자교회에 보편적이고 장기성을 띤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긴박한 문제들이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또한 삼자교회 자체의 객관조건 중에서 가장 허약한 부분이다. 이 부분의 효과적인 해결과 건설은 현재와 미래의 삼자교회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1.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은 도시와 농촌에서, 심지어는 절대다수 삼자교회의 현상과 직면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광훈은 “燃眉之急(눈썹이 타는 것처럼 긴박한 일)”이라는 말로 이 문제의 긴박성을 설명하였다.<sup>17)</sup>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은 삼자교회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절박한 문제이다.

삼자인사는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이 한편으로는 최근에 신도수가 끊임없이 증가한 데 원인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한동안 좌경노선의 간섭으로 종교정책이 잘 실시되지 못하여 신학교가 얼마 동안 문을 닫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sup>18)</sup> 게다가 삼자신학원이 문을 연 이래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양성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한 사람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도 한 원인이다. 전국 13곳의 신학교에서 5년 동안 1,200명의 졸업생 중에 목사안수 받은 사람은 겨우 10명이다.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은 교역자의 노쇠와 체력약화로 성스러운 사역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할 수 없다는 점 이외에 그 공백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삼자교회 500만 신도 가운데 목사는 겨우 1000명 내외라서 전국 각지의 교회와 집회점의 사역은 대부분 자원사역자에 의

해서 추진되며 자원사역자의 양성 문제도 뒤따른다.

이상에서 보면 사실 삼자교회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역자의 노후 및 절대부족”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장래에도 삼자교회의 근본적 문제로서 계속적인 곤란으로 남을 것이다.

### 2. 자양(자급의 의미)방면의 곤란

도시의 교회는 형제자매들이 봉헌의 뜻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自養에 별로 곤란하지 않으며 게다가 많은 교회의 부동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세로 주고 셋돈을 받기 때문에 자양의 문제는 별로 심하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 밖에도 自養방면에서 곤란이 있는 도시의 여러 삼자교회나 현의 1급교회 중 적지 않은 교회가 기업을 경영하거나 여타사업을 운영하여 이윤을 얻어서 교회 자양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일은 어떤 곳에서는 전도인이 성스러운 사역은 뒤로 하고 그 중에 휘말려서 신도들의 불만을 야기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sup>20)</sup>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 삼자교회 및 집회점의 형제 자매들은 봉헌능력이 미약하고 교회도 세로 내어 줄만한 부동산도 없으며 게다가 자금은 부족하여 제3의 산업을 시작할 수도 없어서 이런 상황하에서 만약 기협이나 다른 교회가 돕지 않는다면 자양방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삼자교회의 자양면에서의 곤란은 “자양능력부족”, “기업운영문제” 및 “금전에 대한 유혹” 외에도 어떻게 곤경 속에서 신도가 봉헌하도록 가르칠까 라는 문제와 “외국의 봉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등의 곤란이 있다.

17) 丁光訓:〈對《天風》的祝願〉,《天風》1991.4, P.11

18) 田貴海:〈教牧人員的“青黃不接”與青老關係〉,《天風》,1990.5, P.15

19) 광동성 심천시의 심천당(深圳堂)은 자양방면에서 형제 자매들의 봉헌(인민페로 매월4~5,000원)을 의지하여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부동산을 형제 자매들에게 세로 내주어 셋돈으로 다른 집회점을 도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沈德裕:〈安徽歸來〉,《天風》,1989.2, P.28~29 참조, 張心田:〈按三自精神辦教會的點滴體會〉,《天風》,1990.4, P.14~17

20) 주 9) P. 16과 同

### 3.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문서사역

작년 12월 31일의 삼자4회 기협2회 상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심덕용은 양회의 출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다. 심덕용은 각종 판본의 성경이 이미 650만권과 《신편찬송가》 300만권, 《天風》 5만부가 발행되었고, 남경에서 출판한 《통신교재》 및 《설교집》의 정기구독자가 4만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5년 간에 출판한 성경연구, 영적양육서적은 30종이 넘는다. 이 밖에도 90년부터는 설교녹음테이프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神學教育叢書》는 이미 12종이 출판되어서 신학연구가 주요한 내용인 간행물로는 《金陵神學誌》 및 《燕京神學院院刊》이 있다.<sup>21)</sup> 이상의 보고에서 양회가 최근에 출판사역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성경의 발행에 있어서 이미 86년의 200여만 권에서 650만 권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도나 전도인들의 수요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몇 년 간의 출판은 성경 및 찬송가를 제외한 기타 서적의 출판은 심이번이 지적인 것처럼 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삼자내부의 시각으로 보면 문서출판사업은 양방면의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하나는 수많은 신도와 전도인의 생명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해외의 문자출판을 통해서 자행하는 침투를 약화시키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서의 출판사업은 삼자교회신도 및 전도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아울러 이른바 “해외적대세력이 뚫을 수 있는 구멍”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양회가 현재까지 출판한 서적·간행물·교재를 볼 때 수량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질적인 면에서도 훨씬 뒤쳐진다. 그래서 “질”문제와 “해

외적대세력이 뚫을 수 있는 구멍”<sup>22)</sup>은 줄곧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적절한 해결을 기다려야 한다.

삼자교회의 신도 및 전도인이 토로한 문자출판 문제는 아래의 몇 가지 점에 있다. (1) 책의 종류 및 수량이 너무 적다.<sup>23)</sup> (2) 많은 서적을 살 수가 없다.(특히 사전류)<sup>24)</sup> (3) 출판한 책은 특히 농촌신도들의 실제요구에 지나치게 부적절하다.<sup>25)</sup> (4) 출판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특히 《中國基督教神學教育叢書》의 출판의 진도가 지나치게 느리다. 현재 신학교육상의 문제를 조기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sup>26)</sup> (5) 많은 서적은 49년 이전이나 혹은 50년대에 출판한 구서적의 영인과(특히 설교집), 급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전도인의 저술이다. 그래서 신도와 전도인을 만족시키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sup>27)</sup>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을 통해서 문서출판에서 “수량”, “종류”, “질”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히 긴박성을 띠고 있다. 이 밖에 국내의 13곳의 삼자신학원의 심각한 도서부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수학기간중 신학생들의 곤란과 불만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항학열이 크게 저하된다.

대상에 따라 분류해서 살펴보면 삼자교회가 급히 필요로 하는 서적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신도들이 필요로 하는 성경은 간체자 신구약전서(비록 기협에서 출판하였으나 수많은 농촌교회신도들은 구할 방법이 없다.)와 여러 종류의 초신자양육, 양성에 관한 서적, 복음증거와 전도용의 서적, 소책자, 《신편찬송가》를 제외하고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색깔이 칠해진 복음성가집 등이 필요하다.<sup>28)</sup> (2) 신학생과 전도인들은 성경주석서, 설교참고자료, 신학교재, 연구참고도서, 영

21)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전국삼자회 4회, 전국기협 2회 상무위원회업무보고》, 《天風》, 1992.3, P.7과 同

22) 주 4)의 P.14와 同

23) 崔靈恩, 俞明悅:〈談談當前的教會問題〉, 《天風》, 1989.6, P.2와 同

蔣迦勒:〈當前農村教會的“馬其頓呼聲”〉, 《天風》, 1989.2, P.21~22

24) 崔靈恩, 俞明悅:〈談談當前的教會問題〉, 《天風》 1989.6, P.2

25) 蔣迦勒:〈當前農村教會的“馬其頓呼聲”〉, 《天風》 1989.2, P.21~22

26) 慕義:〈主爲我們行了大事---我國當前神學教育事業概況〉, 《天風》 1989.11, P.8

27) 주 43) P.2와 同 28) 주 25)와 同

적성장을 돕는 책이 매우 필요하다.<sup>29)</sup>

마지막으로 문서출판사업을 말할 때 경제문제와 글을 쓸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자교회의 요구는 엄청나기 때문에 대량발행에 필요한 경비도 상당하여 준비와 착수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게다가 삼자교회 인사들의 세대차와 단층상황 및 장기간에 걸친 신학교육의 중단으로 인하여 실제로 글을 쓸 수 있는 인재도 크게 부족하다. 연로하신 분들은 정력이 부족하고 젊은 세대는 소양이 부족한데 이것들은 모두 삼자교회의 문서출판사업상의 곤란이다.

#### IV. 민감하고 은밀한 고민

“교회내부의 마찰”과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 문제”, “교회와 많은 간부가 함께하는 가운데서의 갈등” 등은 삼자교회내에서 항상 입을 열기가 곤란한 문제이나 심각한 갈등을 내포한 문제이다.

이상의 세 가지 항목은 실제로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 “이익과 이익의 갈등”, “권력과 권력간의” 민감하나 쉽사리 노출되지 않는 은밀한 고민거리이다.

##### 1. 교회내부의 마찰

(1) 종파문제: 비록 삼자교회내에는 분명하고 공개적인 종파조직은 없으나 과거의 여러 종파적 특색이 짙은 종파가 같은 교회내에서 원래 속했던 교파의 특색을 강조함으로써 야기된다. 원래 침례교, 장로교, 중화기독교회 등에 속했던 자는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으나 반드시 떡을 떼며 수건을 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회소(지방교회나 소군교회 또는 聚會處라고 불린다.)”나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안식교”나 반드시 강 같은 곳에서 세례를 받고 방언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眞 예수교회” 바로 “종파문제”는 많은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도를 불안하게 하거나 동일교회내에서 반목을 조성한다.<sup>30)</sup> 일치를 위해 사소한 차이는 접어두려고 하며 한마음을 존중하는 토대하에 창도된 삼자교회의 대연합은 정치권력의 강제적인 집행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한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 “종파문제”는 실로 처치곤란한 문제이다.

(2) 不團結: 不團結이라 함은 교회내부인사가 성스러운 사역을 추진하거나 사역생활중에 서로 단결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결하지 않는 것이 삼자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은 결코 아니고 어떤 지역에서 비교적 두드러지고 어떤 지역에서만 보편적이다. 교회내의 불단결이 신도와 교역자간에만 존재하는 불단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것은 교역자들간의 불단결이다.

교회내의 불단결과 관련하여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일로, 같은 곳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일과 종파문제, 재정문제, 복음전파의 방법과 교회제도에 대한 견해차이문제, 개인결함문제 등에까지 파생된다. 어떤 때는 정부의 종교부서의 관리가 와서 교회내에서 권면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까지 생기고 단결을 해치는 원인을 찾아내어 단결을 촉진해야 하는 일까지 생긴다.<sup>31)</sup>

(3) 不正습관: 이른바 “不正습관”이란 교회내의 여러 가지 명예추구와 관료주의, 권력을 이용한 이익추구, 권력과 이익다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심이번은 이런 것들이 “우상”이거나 부패현상이라고 지적하여 책망하였다.<sup>32)</sup> 이 밖에도 이러한 관료주의를 “사두개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sup>33)</sup> 그리고 이러한 “不正습관”은 삼자교회에서 어떤 문제와 불만과 마찰을 야기하였다.

29) 주 26)과 同

吳歸聖:〈生命之道的果效-----對“傳好”的一個深索〉,《天風》, 1992.2, P.12

張冠儒:〈自勉與共勉-----和主內年老的同工談心〉,《天風》, 1989.9, P.20

30) 興文:〈讀李鵬總理在全國宗教工作會議上的講和〉,《天風》, 1991.2, P.10

31) 陳廣生:〈熱心宗教工作的好幹部〉,《天風》, 1990.6, P.20

32) 沈以藩:〈雲柱火柱四十年〉,《天風》, 1990.9

33) 興布虎:〈論中國教會的“撒都該主義”〉,《橋》, 第30期, 1988.8~9, P.15

(4) 노소관계: 삼자교회에는 심각한 목회자 공백과 세대단층현상(특정연령의 교역자가 없는 현상) 이외에도 사역상의 세대차이가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노소간의 관계문제는 결코 삼자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나 어떤 지방에서는 비교적 두드러지며 어떤 곳에서는 비교적 심각하다.

(5) 양회와 교회의 관계: 88년12월 양회제3차상무위원회연석회의에서 <삼자애국조직과 기협의 관계를 좋게하기 위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간단하게 말해서 바로 “삼자와 기협은 각자의 장정에 따라 동역하고 협력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할 때는 물론 삼자가 기협의 위에 있으며 기협은 또 각 교회의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회와 교회의 관계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삼자인사가 지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곳의 삼자회구성원이 교역자가 아니거나 일부가 교역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며 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인 “총간사”와 “비서장”도 교역자가 아니며 심지어는 불신자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들을 단결시키거나 삼자회에 미가입한 신도들을 단결시킨다는 것은 더욱 곤란하다.<sup>34)</sup> 둘째로 어떤 지방의 삼자회조직은 마비되어 총간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기협도 어떤 곳에서는 이름만 있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래서 양회가 교회와 신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데 명실상부한 기능발휘를 못하며 교회가 자체적으로 통로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양회가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역할할 하게 될 때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장애가 될 것이며 교회의 전도와 활력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 2.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십이번이 말한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당과 국가의 종교정책이 실제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곤란이다. 당과 국가의 종교정책의 실천은 인민의 종교신앙자유와 활동의 보장 및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교회재산문제를 해결해 주고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문제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우선 법률적인 측면에서 헌법 제36조와 《民法通則》제77조와 제117조, 둘째로 정부의 문건의 측면에서 82년의 《19호문건》 및 91년의 《2호문건》과 80년 國發(1980)〈188호문건〉, 셋째로 당과 정부의 수장들의 강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상은 모두 종교정책이 실시될 수 있는 합법성, 근거성, 긍정성이다.

비록 정책실시의 법률적 근거와 문건의 지시와 영도자들의 관심은 이와 같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라해도 그러나 많은 삼자교회의 인사와 교역자가 종교부동산을 되찾는 데서 부딪히는 곤란은 적어도 아래 세 가지점이 있다.

(1) 수속이 번거롭고 까다롭다.

(2) 차지하고 있는 단위와 거주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

(3) 정부간부의 문제: 종교정책의 실시하는 중에 삼자교회인사가 늘상 부딪히는 것은 정부간부의 딱딱한 사고방식이다.

## 3. 교회와 많은 간부가 함께 하는 가운데서의 갈등

“교회와 많은 간부가 함께하는 가운데서의 갈등”은 정부간부가 참견하고 간섭하며 교회내부사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와 갈등을 지적하는 말이다.

삼자교회인사는 간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불만과 비판을 한다. 첫째, 어떤 지방의 교역자는 교회내부사무에 대하여 전혀 자주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신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따라서 그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sup>35)</sup> 둘째, 간부가 종교를 믿지

34) 楊周懷:〈關於基督三自愛國運動〉, 《燕京神學院刊》, 總第10, 11期 1991.10, P.83.

丁光訓:〈在全國兩會委員會會議上的發言〉, 《天風》, 1990.11, P.23.

35) 李志傑:〈按三自原則辦好教會之我見〉, 《天風》, 1990.6, P.11.

않고 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종교를 믿는 군중의 심리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매년 종교를 혐오하는 태도를 가지고 종교활동을 억압하며 종교를 말살하려는 생각으로 월권행위를 하고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sup>30</sup> 셋째는 간부가 종교인사를 관리할 대상으로 보고 신도군중과 연계를 갖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신도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은 지금 차라리 사사로이 반 비밀스러운 집회에 참가하지 허가받은 교회당에 가기를 원치 않게 되었다.<sup>31</sup> 넷째로 정부 및 간부가 기독교 고유업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한다.<sup>32</sup>

만약 교회의 세례교인을 반드시 종교부서에서 심사해서 정하고 교회의 사소한 지출도 반드시 종교부서의 동의를 필요하다면 정부와 교회간의 관계에 협조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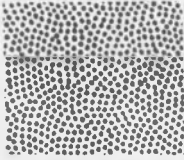
이 밖에도 간부의 월권행위가 전적으로 간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소수의 종교지도자들의 문제가 정부의 참견과 간섭을 야기한 것도 있다. 결론적으로 교회인사는 스스로 교회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사무처리에 있어서 진지하고 더욱더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부는 종교조직을 신임해 주고 수시로 당과 정부의 종교정책을 분명히 기억해 두어 연계를 강화하고 실제 업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맺는 말

80년 이후의 삼자교회 발전은 과거 30년과 비교할 때 실로 천양지차가 있다. 80년 이후 삼자교회는 비록 자신들의 한계는 있지만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를 잘 관리하는 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식견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별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삼자교회가 장래에도 삼자원칙에 따라 교회를 잘 관리하는 대원칙과 방향에 따라 부지런히 걸으려고 할 때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삼자교회는 “내외부의 곤란”, “절박한 문제”, “민감하고 은밀한 걱정” 가운데 처해 있다. 이 세 종류의 곤란과 문제와 은밀한 걱정은

보편적이며 지역적인 성격을 띤다.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문제이고 어떤 것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문제도 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문제는 의심할 것 없이 일반성, 긴박성, 민감성을 띤다. 그러나 삼자교회의 곤란과 문제와 은밀한 걱정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 중에 여러 정치적인 관계, 정책의 변동, 인위적인 요소, 경제적 상황 등이 위에서 언급한 곤란과 문제와 은밀한 걱정을 야기시키고 심화시키고 영향을 주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삼자교회는 그것이 정치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한계는 바로 문제의 근본원인이며 삼자교회가 진정한 자치를 할 수 없게 하는 근본원인이기도하다. 그리고 정책의 변동은 삼자교회가 50년대 이래 받았던 극심한 곤란으로 금년 1월 6일(1992)에 통과한 양회의 각 장정들 중 제2조에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이 첨가된 것은 삼자교회가 국가의 정책의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고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책의 변동에 따른 가변성은 바로 곤란의 동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인위적인 요소는 삼자교회의 가장 큰 결함으로 이것은 단지 사람의 질이 낮거나 사람이 부족하거나 과다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의 문제이다. 많은 삼자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역자들은 과거 역사의 원인과 개인의 결점 때문에 중국교회의 건설과 중국교회 모습의 형성에 분명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은 바로 삼자교회의 은밀한 걱정의 본질이다. 이것은 “自傳”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어려움이 되고 있다. 경제의 상황은 삼자교회의 현실적이고 절박한 곤란이다. 만약 현실적 문제를 배제해 버린다면 심각성은 비교적 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은 삼자교회 가운데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자양”의 문제이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한계와 가변성과 결함과 영향은 삼자교회의 곤란과 문제와 은밀한 걱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이것으로 인해 삼자교회는 수시로 사람들이 해결하기 어렵고 이미 결과가 뻔한 국면으로 빠져들어 가게 된다.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先, 𠂔, 𠂔

먼저 · 선

하나님께서 첫[先] 사람[人]을 흙[土]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ノ]를 불어 넣으셨다.

ノ + 土 + 人 = 先  
생기 흙 사람 (처음, 먼저)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는 들찌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전15:47).

光, 𠂔, 𠂔

빛 · 광

첫째[一] 사람[人]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光]을 발산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光]을 입으시며...” (시104:2).

榮, 榮, 榮

영화 · 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빛을 발하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二]은 선악과[木]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나무[木]위에 올라가[一]이 있음) 순종할 때, 영광(榮光)을 유지할 수 있었다.

二 + 一 + 木 = 榮  
빛을 발하는 두사람 올라가 나무(선악과) 영화 · 영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7).

仁, 仁, 𡵓

어질 · 인

첫 사람 아담과 하와 두[二] 사람[人]은 원래 어질고[仁]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人 + 二 = 仁  
사람 두사람(아담과 하와) 어질다, 인자하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1:27).

火, 火, 火

불 · 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빛[火]을 발하는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1:26).

祖, 祖, 祖

조상 · 조

첫 사람은 하나님[示]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且] 모습이었다.

示 + 且 = 祖  
하나님 같다 조상 · 조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히2:11).

36) 丁光訓:〈丁光訓在全國人代的發言〉, 《中國與教會》, 第70期, 1989.3~4, P.20.

37) 同上

38) 丁光訓:〈丁光訓致國務院宗教事務局信函〉, 《中國與教會》, 第70期, 1989.3~4, P.19.

39) 蕭安平, 李洪玉:〈正本清源, 理順關係〉, 《天風》, 1990.3, P.14.



중국 기독교 인물사전

## 清末民初에 뛰어난 여의사와 전도자였던 石美玉

(서울대 중국어성경반 제공)

石美玉(1873~1954)은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여자 의료선교사로 일하였다. 그녀는 해외에 있을 때, 쾌활하다는 의미의 석마리(Mary Ston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일생동안九江에서 婦幼病院(Elizabeth Skelton Danforth Hospital)과 상해에 있는 베델병원에서 헌신을 하였다. 의료와 전도사업, 그리고 여간호사를 길러내는 일에 있어 매우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石美玉의 양친은 강서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믿은 최초의 신자였고, 신앙도 매우 신실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줄곧九江에 있는 美以美會(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의 목사로 사역을 하였고, 그녀의 어머니는九江의 美以美會에서 운영하는 여학교에서 교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매우 짙은 기독교적 가정분위에서 성장하였다. 그녀의 양친은 기독교사상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매우 진보적이 되어 중국의 전통적인 많은 관습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려 하지 않게 되었다.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관습에 따라 반드시 전족을 하여야 했다. 미옥의 부모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고 미옥에게 전족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때문에 미옥은 당시에 관습을 지키고 있었던 강서지역에서는 전족을 하지 않은 큰 발을 가진 것으로 크게 이름이 나기도 하였

다. 미옥의 중국어와 성경에 대한 교육은 그의 어머니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에 미국의 의료선교사였던 Kate Bushnell의 영향을 받아 그의 딸이 의학교육을 받아 Bushnell과 같이 숭고한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게 되었다. Bushnell 의사의 건의에 따라서 의학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완전한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石美玉의 아버지는 그녀를 光緒 8년(1882)에九江의 儒勵女學(Rulison-Fish Memorial School)에 보내어 기초교육을 받게 하였다. 교장인 賀 교사(Miss Gertrude Howe)의 지도하에 그녀는 10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였다. 光緒 18년(1892) 미옥은 儒勵女學을 졸업한 후 동학인 康成과 함께 賀 교장의 인솔하에 미국으로 가서 여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였다. 그녀는 순조롭게 미시간 대학의 의학부의 입학시험을 통과하였다. 그 해 가을 입학하였으며, 4년 뒤(1896) 두 사람은 순조롭게 졸업을 하였다. 石美玉과 康成이 두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대학 의학부에서 중국인 여자로서는 최초로 졸업장을 취득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졸업 후에 石美玉과 康成은 조지아주로 가서 그곳의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光緒 22년(1896) 가을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식으로 美以

美會 부녀국외부(Womani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Church)의 파견과 지원을 받아서 美以美會의 정식 여자 의료선교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동포들을 위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미옥과 庚成 이 두 여의사는 九江으로 돌아와 의료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사람은 탁월한 의술과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구제하려는 봉사의 태도를 가졌으므로 급속히 九江인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게되었다. 石美玉이 후에 보고서에서 처음 九江에 도착한 뒤 10개월 동안 그녀와 庚成이 진료한 사람은 거의 2,300여 명이나 되었으며, 왕진을 나간 횟수도 300여 차례에 이르렀음을 밝힌 적이 있다. 진료활동은 비록 열심이었으나 시설이 미비하고 진료소 또한 허술한 것이 곤욕이었다. 다행스럽게도 2년 후에 石美玉은 미국 조지아주의 명의사요 좋은 친구였던 Danforth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게 되었다. 그가 제공한 기금으로 부녀자와 아이들을 진료하는 婦幼病院을 세웠다. 병원의 이름은 Danforth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Elizabeth Skelton Danforth Hospital이라 지었다. 이 신설 병원은 95개의 병상이 있었으며 시설도 매우 크고 완전하였다. 그러나 병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기 전인 光緒 25년에(1889) 의화단 사건이 발발하게 되었다. 의화단 사건은 짙은 반기독교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石美玉은 잠시 일본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병원의 개원도 늦출 수밖에 없었다. 光緒 26년(1900) 비토소 고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다시 정돈한 후 그해 2월 7일 정식으로 개원을 하였다. 石美玉은 이 병원의 원장의 직무를 맡았다. 光緒 29년(1903) 庚成이 남창에 새로이 병원을 설립하여 새로운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石美玉은 혼자서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九江의 婦幼病院을 도맡게 되었다. 당시의 Danforth는 미옥에게 여러 가지 의료 사무상의 협조, 특히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지닌 미국 여간호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미옥은 그의 호의에 대단히 감격하였으나 단호하고도 자신감있게 중국 여인들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중국은 스스로 효율적인 의무행정을

볼 줄 아는 인재와 간호원을 배출해 낼 수 있음을 표명하였다. 光緒 33년(1907) 두번째로 미국에 건너갔고, 民國 7,8년(1919-19) 그녀는 세번째 미국으로 건너가서 록펠러 재단의 장학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 와서 다시 홈킨스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공부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계속 미국에 머무르면서 곳곳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리고 중국인의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한 상황을 미국의 교우들에게 전하였으며 또한 중국의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고국에 돌아와 봉사하도록 격려했다. 石美玉의 동생인 石成志 의사는 그녀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대신하여 九江의 婦幼病院을 맡았다. 경영을 잘하였으므로 미옥은 병원을 그에게 맡길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미옥은 적극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독교 사업을 개척하였다. 民國 9년(1920) 미국에서 돌아온 후 美以美會 부녀국외부와 관계를 청산하고 상해에 거처를 정하여 그곳을 새로운 선교지역 삼았다. 그리고 이 성스러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Miss Jennie V. Hughs와 함께 베델미션과 베델병원을 설립하였다. 民國 9년부터 民國 26년에 이르는 동안 石美玉은 베델병원의 간호원 훈련을 맡았다. 명성이 전국에 퍼지게 되었는데 미옥은 친히 성경반을 이끌었으며 간호원들에게 영성과 지식이 아울러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훈련을 마친 간호원들이 병원을 떠날 때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간호원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石美玉은 의사와 교육이 외에도 뛰어난 전도자이기도 하였다. 전도방면에서의 명성이 그녀의 의사로서의 명성보다도 높았다. 石美玉이 인도하는 베델 미션은 民國 26년(1937) 항전운동이 일어났을 때 홍콩으로 옮겼고, 후에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Pasadena로 옮겼으며,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막 성장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전란을 맞게 되어 미옥은 그곳을 떠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Pasadena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民國 44년(1954)말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향년 82세였다.

(中國基督教 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

무 명

(번역: 양승훈)



진리에 어두웠다.

문화대혁명이 막 끝날 무렵인 1972년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동료 중 한 부인이 집에 찾아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이지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의 단순한 가정주부로, 眞理로 남을 설득시키기에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단지 예수가 좋다는 말과 함께 같이 예수를 믿자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묘한 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러겠다고 대답을 해 버렸다. 그래서 어느날 저녁 그녀가 나를 데리고 한 자매 집에서 모이기로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다. 방안은 비좁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스무너댓 사람이 뿔뿔이 모여 앉아 소리 죽여 애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친절히 정말 아주 열렬히 나를 맞아주었다. 어떤 모임에서나 다 그렇듯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나에게 이것저것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물어오다가 집회가 시작되서야 이내 조용해졌다. 기도모임인 때문인지 설교를 담당하는 이도 없이 다만 기도로 일관될 뿐이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

람이 소리내어 기도를 했는데, 놀란 일은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의 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질병,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전도에 관한 기도들이었다. 이처럼 友愛로 서로 단결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께 구하는 이들이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라 생각되고, 그들이 믿는 神 또한 선한 분이라 생각되어 나도 그들의 믿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내가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얇았다. 구원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회개, 죄의 사면, 영혼구원 등등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또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박히게 되었으며, 영생이라는 게 무엇이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애매모호할 뿐이었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내가 믿는 신은 주 예수이고, 그분은 가장 위대하며 가장 좋으신 분이며,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시어 나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하여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매번 집회에 참가하여 남이 하는 기도를 기초로 하여 집에 돌아와서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고, 나

의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평안을 얻고, 남에게 곤혹을 당하지 않기를 빌기 시작했다. 당시 집안의 상황은 말한 형편이 못되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 시어머니는 매일 도박판에 어울려 돈을 잃을 때마다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가정형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두 살 난 아이를 종일 탁아소에 맡겨 놓고 석탄덩어리를 메어 나르는 중노동을 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집마다 메어 나르다가 늦게 탁아소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는 다시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만 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마다 내 팔자를 타하기도 했는데, 더욱이 혹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병이라도 난다면 정말 큰 일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 집을 돌봐주시기를 바랐으며 일이 얼마나 고되든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 나는 아이를 업고 믿는 마음으로 집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했다.

성경반에 참신하다.

한번은 집회에서 한 형제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만났다. 주를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 영혼은 죽어

서 천국에 이를 것이나 믿지 않는 이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마음을 끌어 당겼다.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모든 이가 동경하는 곳이지만 지옥은 고통이 가득하여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곳이다 내가 지금의 고생으로도 부족하여 지옥에까지 가서 죽을 고생을 더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이승에서 좋은 것을 얻을 뿐 아니라 저승에서도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의 그 오묘한 말씀에 감동되어 더 듣지 않으면 못견딜 것 같아 앞으로는 자주 교회로 나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신약성경을 구했을 때, 그 즐거움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를 향해 소리쳤다. --「주여!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보물을 주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들겠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를 도중에 휴학을 하는 바람에 졸업도 못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글자는 읽지도 못했으며 어떤 부분은 뜻조차도 애매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모르는 글자나 이해 못하는 부분은 따로 표시를 해 두었다가 교회에 갔을 때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침례교의 劉 목사라는 분이 성경반을 개설했는데 청년들은 이 목사님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진리를 갈

구하던 차라 나는 즉시 이 성경반에 참가했다. 확실히 성경공부 후 많은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많은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죄, 죄의 결과, 주의 사랑, 또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내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던 사실을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劉 목사님은 아주 상세히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강해하셨고,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자신이 거듭 태어나는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님의 분부와 명령을 따르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무릎을 꿇고 주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사죄를 간구하고, 주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일생을 주관해 주시기를 빌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생명이 아주 유치하고 메말라 있음을 느껴 성경공부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 다녔다. 1982년 三自教會에서는 義工양성훈련반이 개설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으나 신청인원이 밀려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된다.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三自」로 훈련받아진 義工이 되었다라면 「三自」의 지배를 받고 그들이 모이는 모든 학습 모임에 참가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조종에 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같이 이렇게 자유로이 농촌벽지

를 돌아다니며 전도할 리도 만무했을 것이다.

주께서 은혜로이 딸을 내려 주시다.

주님이 늘 사랑하시어 나는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다. 내가 두번째로 임신을 하여 삼 개월이 되어갈 무렵 시어머니는 내내 아들을 증히 여겨 남자아이를 낳기를 바랐으나, 남편은 딸아이를 너무 좋아하여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다른 집안과 딸아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 내가 아들을 낳아 남편 말대로 아들을 다른 집 딸과 바꿔 온다면 분명 시어머니가 반대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었다. 정말이지 괴롭고 불안한 세월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나 하는 문제는 우리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주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 달라는 기도만이 해결책이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천천히 한 갓난아이가 내 앞에 내려왔다. 봤더니 아주 예쁜 여자애였다. 나는 주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라 굳게 믿었다. 과연 딸을 낳았다. 남편의 기쁨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고, 이로 인해 가정의 분규는 끝을 맺게 된 것이다. 애가 둘이라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공교롭게도 남편마저 집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겨우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올 정도였다. 따라서 가정 안팎의 모든 문제는 내 손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을 꾸려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나는 여전히 석탄덩어리를 메어 나르는 중노동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만 했다.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밥을 짓고 남자애를 유치원에 보내고 딸아이는 탁아소에 맡긴 다음 급히 석탄덩어리를 집집에 날랐다. 어떤 때는 낮일이 너무 고된데다가 밤에 아이가 울어 잠이 모자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하루쯤 쉬었으면 할 때, 홀연 주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늙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언 6:9~11) 맞다. 게으름을 피우고 이렇게 누워 있다면 언제 애들을 유치원과 탁아소에 보내고 언제 석탄을 나르겠는가? 주의 깨우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얼른 일어났다.

이처럼 바쁜 일과 속에서도 집회나 주일예배에 결코 빠져본 적이 없다. 항상 딸애를 업고 남자애는 걸려서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아직 아이가 없는 나이가 꽤나 되는 한 자매가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데, 반신불수로 자리에

서 일어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풍증으로 손발이 아주 불편한 상태라 남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돌연 힘을 내어 그 자매를 돌볼 용기와 의무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도와 쌀과 음식거리를 사다주고, 석탄을 나르고, 물을 길고, 옷과 이불을 빨아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거의 10년이란 세월 동안 돌봐주었다.

주께서 나를 내보내어 밖에서 일하게 하시다.

힘든 노동과 두 아이를 돌보는 일, 집안일을 하면서 병자를 돌보는 일들이 부녀자로서는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힘껏 나를 쓰시고, 두 아이는 착한 아이로 커가게 하시고, 나에게도 건강을 또한 주시어 적당히 시간을 안배하시어 내가 모든 일을 다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내 마음도 흡족하였다. 나도 역시 아주 만족스러웠다. 누가 알았겠는가, 나이 많은 한 자매가 어느 날 특별히 나를 찾아와 말하기를 서너 번 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주님이 나를 밖으로 내보내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매

우 놀랐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어찌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가정생활이 곤궁하기 때문에 내가 석탄을 날라서 집안 살림에 보태야 하고, 둘째, 집세가 밀렸는데도 아직 갚지 못했고, 셋째, 두 아이를 내가 돌봐야 하고, 넷째, 내가 공부벌 얼마 하질 못해서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무슨 이유로 나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내심 만약에 주님이 정말로 나를 보낸다 하더라도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가정생활과 두 아이를 방치해 둘 수 있겠는가?

나는 계속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유치원과 탁아소로 보내고 또 데려오고, 석탄을 나르고, 집안일을 돌보고, 두 늙은 자매를 돌봐줬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영양결핍으로 무력감을 느끼긴 했으나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다가 1981년초에 부인병이 들어 날로 병세가 심각해 가더니만 결국은 대량의 자궁출혈이 생긴 것이다.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치료는 다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석탄을 나를 수도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것조차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내 수입이 끊어지면서 집안은 점점 어려워져 갔고, 매달 살림을 꾸려나가기



가 정말이지 까마득했다.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늘 초장의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었다. 나에게 원래 조그만 상점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길 옆에 위치해 있어서 정부에서 이 집을 빌려 쓰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글세로** 단지 월 50원만을 주면서 몇 년 동안 집세를 올려주지도 않고 이사도 가지 않았다. 이런 궁핍한 생활에 유일한 희망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육신의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을 전부 다 주 앞에 털어 놓았다. 주님은 나를 붙잡히 여기시고 또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위정자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다. 주관부처에서 지나치게 낮은 집세에 따른 원성 때문에, 다른 상점의 집세와 비교해 보더니만 회의를 열어 상점을 내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이사를 나가자마자 한 목재가구상에서 매월 200원에 다시 세들어 오게 되어 이제 완전히 경제문제는 해결을 본 것이다. 그러나 병은 호전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의사들도 속수무책이었다. 많은 교인들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여! 당신이 나를 택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나는 가정의 궁핍을 핑계로 당신의 뜻을 거역했나다. 이제 당신께서 저의 가난을 거둬주셨으니 당신의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아다시피 이 병든 몸으로 어떻게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이제 다시 저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고, 질병의 고통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서 주셨으니 당신의 뜻을 따라 이 몸을 다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마치고 난 뒤 어느 날 오후 나는 침상에서 몽롱한 중에 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며 하늘이 밝게 빛나더니 아주 또렷이 얼굴에 화사하고 인자함이 가득찬 한 분이 다리까지 내려진 기다랑고 하얀 옷을 입고는 한 손에 가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접시를 들고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나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腸**을 다시 정리를 하고는 내게 며칠만 지나면 다 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말로 의사에게도 보이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는데도 일주일도 안되어 저절로 출혈이 멈추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감사와 찬미를 주께 드린다. 그분이 나를 돌보시어 그의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분은 내 몸에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셨고 내가 그분의 자애로움과 전지전능하심과 실재를 경험하게 한 것이었다. 내가 어찌 은혜에 감복치 않으며,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외쳤다---「주여! 당신에 속한 자이니 당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다만 내가 어리석어 감당치 못할까 두렵고, 아무 것도 모르고, 언제 나아가고 또 어떻게 당신의 뜻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겠나이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 ◆ 進化工場에서 일을 시작하다.

비록 도회지 중심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은 도시 변두리의 농민신분에 속했다. 당시 규정으로는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도 모두 엄마의 신분에 따르기 때문에 내 두 아이도 나를 따라 농민신분이 되어 농사일에 참가해야만 식량을 배급받을 수가 있었다. 당시는 식량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가족 수에 따라 식량을 배급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농민신분을 바꾸어 도시로 옮겨가 살려고 돈을 써 보기도 했지만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필요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한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 가족 셋을 모두 시내로 들여보내 주셨다. 1985년 省第二化學工場에서 노동자를 모집했고 나이는 35세까지였다. 그때 내 나이 바로 35세였는데 한번 시도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식 노동자로 뽑히게 되었다. 공장측에서 바로 우리 식구 셋을 농촌



에서 도시로 이주를 주선했다. 주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나의 주이시니, 나의 모든 좋은 것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진화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여공을 접촉하게되니 자연 전도를 할 기회가 많아졌다. 나를 이 무리 중에 두신 것도 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이었다. 주는 나에게 형제자매들을 돌볼 많은 기회를 주셨다. 당시 농촌에서는 의사와 약이 모자라 성 밖에 있는 형제들은 시내로 들어와 병을 치료해야 했다. 나는 그들을 도와 의사를 찾아 병원으로 옮겨주고 가벼운 상태의 환자는 내 집에 묵게하고 중병환자는 병원에 입원토록 한 다음 그들의 뒷일을 맡아 생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줬다. 또한 틈이 날 때마다 병원에 들러 문병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병실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친척도 아니면서 서로 형제와 같이 친절하고 열심히 관심을 두고 병치레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아주 회한하게 여겼다. 우리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졌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피를 흘리며 목숨을 버리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성령이 함께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이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시어 주

예수가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하신 것이다. 복음은 주님의 커다란 능력이시니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구하려 하시는도다. 그들이 주님을 받아드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께서 내 마음에 부어 주셨다. 내 가정은 이후로 멀리서 온 환자들만 받아 들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시는 이들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들도 받아들였다. 이처럼 愚昧無知하고 공부도 별로 한 것이 없어 남과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잘 사귀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인간인 나에게 이런 크나큰 은혜를 주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나에게 권면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거동이 곤란하여 늘 괴로워하거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할 때 늘 나를 찾아와 슬픔을 같이 나누고 나로 인해 위로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참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참된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봉사해야 할 범위도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일에 바쳐야 할 시간도 많아져 갔으나 나는 두말없이 매주 일요일 외에 이틀씩 휴가를 내어 교회일에 봉사를 했다.

1989년 주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맡고 있는 형제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 두 곳에서 인도해야 할 집회인 주일설교가 내게로 떨어진 것이다. 주에게

기도를 했다---「주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감당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만약에 저를 쓰시려거든 원하오니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도와 주시어 영적 능력의 지혜를 내리시고 당신의 사업을 이루게 하소서.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처음 설교에 비록 많은 기도와 설교준비를 했지만 막상 강대상에서 오르니 심장이 똥똥 울리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더해주시는 힘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일을 다 해낼 수 있었다. 용감하게 두 번의 묵회와 주일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일이 벌써 20번이 넘어섰다. 매번 집회에 30여 신자가 참석을 했고, 9명의 동역자가 돌아 가면서 곳곳으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 주의 은혜는 구원으로 향하려는 자를 날로 증가시켜 주어 신도와 집회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 강대상에서의 설교와 심방묵회가 더이상 이 몇 명의 인원으로 는 감당해 낼 수가 없었다. 참으로 같아야 할 발은 넓으나 일할 능부가 없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올해초부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바쳤다. 사역을 함에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애로움과 신실하심을 깊이 믿고,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삼가 영광과 찬송을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주님께 올린다. 魚

「中國與教會」89期 중에서)

# 중국어로 찬양을

## 因祂活着

GLORIA GAITHER  
WILLIAM J. GAITHER

Because He Lives

WILLIAM J. GAITHER

F7 F7sus B<sup>b</sup>maj7 B<sup>b</sup>13 E<sup>b</sup>maj7

0 5 1 2 || 3 - - - | 3 3 4 3 . 2 | 1 - 6 - |

因 祂 活 著 ——— 我 能 面 對 明 天， —

C9/E B<sup>b</sup>/F F/E<sup>b</sup> B<sup>b</sup>/D Gm7 — Gm7 G<sup>b</sup>13

6 2 1 6 | 5 - - - | 5 5 1 3 | 2 - - - |

— 因 祂 活 著 ——— 不 再 懼 怕

F13 Cm7 F9sus B<sup>b</sup>maj7 Cm7 B<sup>b</sup>7 E<sup>b</sup>

2 5 1 2 | 3 - 4 - | 5 3 2 3 | 4 - 6 - |

我 深 知 道 ——— 祂 掌 管 明 天， —

Cm7 A<sup>b</sup>13 B<sup>b</sup>/F G7 C7 F9 B<sup>b</sup>

6 1 1 2 | 3 . 3 4 3 . | 2 . 2 3 2 | 1 - - - | 1 - - - ||

— 生 命 充 滿 了 希 望， 只 因 祂 活 著。 —

©1971 by William J. Gaither.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 中文取自 救世傳播協會“聖經歌曲”之譯詞，蒙允採用。

### 우리말 가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 장님이 보다

## 瞎子看见

“可怜，  
可怜我吧，  
给我点钱！”



在一个安息日，也就是星期六，耶稣遇见一个瞎子。

어느 안식일 곧 토요일에 예수께서 장님 하나를 만나셨다. “날 불쌍히 여겨 동냥 한푼 줘쇼.”

主耶稣把一块泥抹在他的眼上，  
说：“去洗吧”



주 예수는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他去一洗。



“내가 볼 수 있게 됐어!”  
“我能看见了!”

그가 가서 씻었다.

“이 자는 그 눈먼  
거지가 아닌가?”  
“그가 보게 되었구나!”

“这不是那  
瞎眼的乞丐!” “他能  
看见了!” “耶稣开了  
我的眼睛。”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감사해야 할 분이야."  
"예수가 죄를 범한 거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를 성전에서 내쫓았다.



예수가 이를 아시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로다."  
"주여 제가 믿나이다."





모도물에 나타난

## 최중동 근국향

(연구부·번역부 제공)

### 증 고

#### \* 중국인 영적 안식처 갈망

중국 YMCA대표자로서는 최초로 지난 12일 대한 YMCA연맹(사무총장 강문규)의 초청에 의해 공식 방한한 리 샤오빠오(72), 중국Y연맹 사무총장은 『중국인 민들이 물질적 만족으로 영혼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안식처를 진지하게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 총장은 중국교회의 자립주장은 결과적으로 제국주의의 도구 역할을 했던 지난 중국선교역사를 통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선교란 이름하에 자행되었던 서구의 식민주의적 중국침탈을 지적했다.

(국민일보 92.5.16)

#### \* 중국기독교 급속확대

지난 2월말 중국을 방문한 미국교회협의회 대표단은 방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독교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더욱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중국의 헌법상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독교연합신문 92.5.17)

#### \* 헌법은“자유”현장은“억압”

지난 2월말 중국을 방문한 미국교회협의회 대표단은 방문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기독교는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중국의 헌법상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기독교의 성장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공산주의 몰락과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정부는 극히 긴장되어 있다”고 미 교회협 중국 프로그램 프랭클린 우 대표는 지적하면서 “중국정부가 발표한 신

### 사 회

\* 맹목적인 기류의 문제가 중국대륙을 소란하게 한다.

중국대륙의 최근 ‘맹목적인 기류’현상이 심각한 사회위기로 드러났다. 농촌은 이미 대량의 과잉노동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세의 하남성 농촌 청년인 유형은 최근 살길을 찾아 광주로 내려왔다. 그는 “농촌 집에서는 내가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현재 대륙 각지의 농촌의 유희 노동력은 2억여 명 정도인데 북경관변자료에 의하면 금세기말이 되면 약 3억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亞洲週刊 1992.3.1)

#### \* 주강 삼각주의 개혁개방 후의 세속풍조

주강 삼각주가 대륙 지역 중에서 앞서서 부를 쌓게 되자 현지 농민의 소비와 문화생활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관은 이 지역에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지만 여전히 아래 몇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다.

1. 소비상황의 도입이 심각하다. 주강 삼각주의 농민들이 비록 부유해도 생활수준은 홍콩에 비해 여전히 한 단계 떨어진다. 그러나 현지의 소비는 오히려 홍콩을 바짝 뒤쫓아 가고 있다.

2. 사창가 출입, 도박, 음주, 춤과 노래 등 추악한 현상이 거듭된 단속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

3. 봉건미신 의식이 더욱 깊어져 사회주의 관념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중공이 이상의

중국문서 6호는 사회주의 체제를 침탈하는 외래사조에 대하여 싸울 것을 호소함에 따라 지역단위 국가기구들이 종교를 부당하게 억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음신문 92.5.17, 크리스찬신문 92.5.23)

#### \* 毛澤東 "귀신 반열에"

무신론자 毛澤東은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중국대륙에서 미신을 뿌리뽑겠다고 공언했다. 1949년의 일이다. 그러나 毛는 죽어 중국인들의 샤머니즘에 또 하나의 귀신이 됐다.

해안개방지구인 福建省의 한 도시에 毛澤東사당이 있다. 毛의 초상화 앞에 촛불을 켜고 복돋을 올려놓고 중국인들은 부귀영화를 빈다. 毛를 비롯한 공산혁명 영웅들은 관우와 장비의 뒤를 이어 「사회주의 인민」들이 제사를 올리는 귀신의 반열에 든 셈이다. (국민일보 92.5.28)

#### \* '시한부 종말론' 극성 대책 요구

최근 중국교회에도 '92년 10월28일 예수재림'을 외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각종 이단사설이 들어와 방언과 안수기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국선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2.6.14)

#### \* 중국기독교협대표 방한 예정 중국 교회대표가 해방 후 처음으로 한국교회를 공식방문한다.

중국기독교협의회(CCC, 회장 텡주교) 대표단 9명은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한국교회와 교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대표단은 지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단의 중국 공식방문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 한국교회의 목회자 11명이 중국교회를 방문하는 등 한국과 중국교회간 선교협력에 긴밀해지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 92.6.21, 국민일보 92.6.20)

#### \* 중국기독교 탄압 속 꾸준히 성장

에드니 선교사는 80년대말 종교활동에 대해 일시적인 유희정책을 실시했던 중국정부가 최근 들어 정부공인기관이 삼자애국교회를 통해 중국기독교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여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기독교는 중국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도시교회들과는 달리 중국의 전통적인 가락에 맞춰 찬송을 부르고 전통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평신도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신앙적인 순수성은 상당히 높지만 지도력의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성경책의 인쇄는 허용하고 있으나 배포는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지도가 힘든 형편이다.

(국민일보 92.6.13)

폐단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따끔히 다스릴 만한 만병통치약을 찾지 못하고 있다. (明報 1992.3.7)

#### \* 中國경찰 賣春철폐

중국 남부의 광둥성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일제단속에서 매춘부와 고객 약7천 명을 연행했다고 5백50개의 매춘업소를 폐쇄했다고 중국반관영 통신사인 CNS가 25일 보도.

(국민일보 92.5.27)

#### \* 中國에 關牛부활

중국정부는 고대 스포츠인 關牛를 부활시키기

로 하고 투우의 고장인 浙江省 진후아에 투우장 개설을 허락, 오는 10월 관광축전 행사와 때맞춰 문을 열 계획이라고 홍콩의 新晚報가 4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6.5)

#### \* 中國 大卒者 「현실」에 논돈다.

오는 9월의 졸업을 앞둔 60여만의 중국 대학졸업예정자들에게는 금년 여름의 더위가 한층 무더울 전망이다.

국가가 배정해 주는 직장을 마다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92.6.22)

\* 천주교우들은 당국이 교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하다.

福建省 포전시의 천주교우들은 당국이 교회를 핍박하여 백십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를 옛성터의 증건계획에 편입시켜 완전히 헐어버수는 일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국은 성당본관을 포함하여 사제관 수녀원 및 기타 목축농장 등 10여 동의 건물을 헐려 하고 있다. 포전의 천주교우는 국가와 당의 종교정책을 파괴하는 이같은 입법을 즉시 중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교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일부 교우는 농촌지역의 교우들을 결집시켜 단체의 힘으로 교회를 보호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公教報》 1992.1.24)

\* 이탈리아 총리가 이봉 총리에게 종교법법인 명단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총리 안드리오는 중국 총리 이봉과의 회담중에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봉 총리에게 구속되어 있는 천주교도와 당국과 견해를 달리하는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회담 후 안드리오 총리의 대변인은 안드리오 총리는 이 총리에게 「정당하고도 앞으로 유용한 자세」를 취하여 구속된 인사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전언했다. 이에 대해 이봉 총리는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결핍되었음을 부인하고 만약 위의 종교인사들이 중국의 법률을 위반했다면 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中方은 이 명단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나 서방국가 인권문제에 대

한 이의 제기는 모두 중국의 내정간섭임을 다시금 천명한다고 했다. (《明報》 1992.1.29)

\* 대륙의 청소년 가운데 종교를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공의 비밀문서에서 갈수록 많은 대륙의 아동들이 종교를 믿고 있으며 그 중에는 공산당을 거부하고 국기에 대한 존경을 거부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이 문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일부지역의 청소년 가운데 종교를 믿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33%에 달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는 종교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33.6%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절강성 교육국에서 각 교육부문에 발송한 통지서에서 종교인사들이 아동들과 청년들에 대해 성경공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안국의 보고를 인용하여 이 구역에 이미 8개의 성경반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건에서 신앙자의 수가 증가하는 일의 원인의 일부는 외국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종교를 믿는다는 혐의가 가는 사람에 대해 감시할 것을 지령했다.

(《星島日報》 1992.2.29)

\* 외국인이 광주시에서 성경 소책자를 배포

수명의 외국인이 광주시 일대에서 행인과 몇몇단체에 대해 〈何去何從〉 〈永生之道〉 〈神在何方〉들의 소책자를 배포했다. 하교후 이 길을 지나는 국민학생들은 이 소책자에 호기심을 보이며 책자를 받아가 가정과 학교에서 돌려가며 읽었다. 학교

측은 이 일을 안 뒤 크게 긴장하여 평화적인 운동 반평화적인 운동의 생생한 투쟁으로 표현하면서 긴급히 교무회의를 열어 교육국과公安부에 보고할 것을 정하였다. 상급기관의 회신을 받은 후 학교측은 전교적으로 「반동적인 소책자 수집과 반동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反和平演變 투쟁」을 개시하였다. 각 학급의 담임은 외국인에게 받은 모든 소책자를 수거하고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제도는 좋다」 「평화적인 변화는 우리 곁에 있다」 등의 특정교육을 하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소책자와 이를 읽은 학생들을 검열을 엄격히 하였다.

(《明報》 1992.2.25)

\* 인권조직위원회에서 당국의 종교에 대한 강화에 대해 비판하다.

국제인권조직인 「亞洲觀察」이 발표한 보고에서 말하길 1989년 6월 천안문 광장의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이후 중국정부는 종교에 대하여도 진압조치를 시작하였는데 동구 공산주의의 붕괴 및 소련 해체 후 진압조치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최근 국내의 천주교도와 기독교도, 회교도, 불교도와 당에서 말한바 소위 미신적인 종교단체의 성원들은 모두 진압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92년 1월 20일에 발표한 보고에는 일부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체포되거나 구금, 감시받고 있으며 더욱 실종된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종교가 해외 적대세력의 침투와 국내의 분열을 유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두

려워하고 있다. 보고에서는 다시 덧붙여 중국정부의 진압조치는 일종의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형태상의 적대감」 및 수년 간 가한 제종교에 대해 각종 제제와 현재 중국정부가 국외의 종교단체들이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감시하고 있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했다.

(《公教報》 1992. 2. 21)

\* 미국국적의 위클리 목사가 대륙의 종교상황에 대해 언급하다.

기독교 愛德기금회 해외 연락 담당인 위클리 목사는 중국은 비록 천안문 사건 후 긴장분위기가 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발전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 목사는 40년 이래 외국국적의 목사로는 처음으로 중국교회의 세움을 받은 목사로서 방 보도물에서는 수시로 중국교회가 진압받는 소식이 보도되지만 중국내에서는 오히려 대규모적인 진압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외에도 위클리 목사는 중국정부가 이전 소련과 동구의 변화, 특히 종교적 역량이 이같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당국은 중국도 동구와 마찬가지로 「和平演變」을 경과하면서 자본주의를 밟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公教報》 1992. 2. 21)

\* 당국은 종교활동을 냉각시키는 조치를 실시

금년들어 중공은 여전히 대륙의 신도들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종교활동의 열기를 냉각시키고 조직요인을 종교조직에 침투시키고 있

다. 보도에 의하면 대륙 각지의 종교국장은 2월 하순 북경에서 닷새 동안의 회합을 가져 피차 종교업무에 대한 경험을 교류했다고 한다. 중공 青海省 위원회는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공산당은 반드시 시종 종교를 신앙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탈당 혹은 제명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 종교적인 색채를 띤 민족전통 활동에는 참가할 수 있다.

(《星島日報》 1992. 2. 17)

\* 대륙의 신도 수가 일억을 넘다.

《시카고 논단》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당국이 무신론을 애써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륙에는 적어도 1억 2천8백만의 신앙인이 있어 모택동이나 마르크스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중국당국은 종교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 내부의 일진일퇴식의 권력투쟁의 반복으로 종교신앙의 자유는 늘 침해를 받아왔다. 신증을 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기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이 보도에서는 또한 중공은 종교인사들이 어떤 외국의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문에 국내의 많은 소위 「지하교회」에서 일하는 천주교신부들은 바티칸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며 중공당국의 「중국천주교애국회」를 거부하여 구속되었다.

(《星島日報》 1992. 3. 4)

\* 정권에 봉사하기 위한 종교업무

5일 간의 예정으로 열렸던 전

국종교국장회의가 오늘 북경에서 종결되었다. 이 회의는 각지에서 계속 종교신앙자유 정책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관철 집행할 것, 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것, 법에 의거하여 종교사무의 관리를 강화할 것, 종교계인사와 일반신도대중의 단결교육업무를 잘 추진할 것, 종교계와의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 종교업무가 안정단결과 경제건설을 위해 더욱 봉사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또 애국 종교단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종교계인사를 단결케 하여 함께 업무를 잘 수행하여 당의 「十四大」의 개최를 환영토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2. 2. 29)

## 문 화

\* 교환금지정책 폐지

台灣정부는 지난 40년 간 고수해 온 中國과의 학생교환금지정책을 25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대만 학생들은 중국 본토를 방문할 수 있으며 중국 학생들도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92. 5. 26)

\* 40년 만에 과학자 교류

中國 과학자 12명이 台灣 과학자의 초청으로 오는 6월과 7월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함에 따라 중국대륙과 대만 兩岸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과학자 교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홍콩신문들이 26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 5. 26)

＊ 해외두뇌 유치 박차

중국정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외국으로 떠난 유학생수는 최소한 20만 명. 이들 중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숫자는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4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른 중국의 타격은 적지 않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인력은 풍부하지만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두뇌들은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

견디다 못한 중국정부는 정치적 사건에 관한한 단호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를 버렸다. 지난 1월 중순 鄧小平은 남부지방 시찰중 『과거의 정치태도가 어땠건 귀국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할 테니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시발로 해외잔류 유학생과 교포와 학자들에 대한 귀국선택 작업을 국가차원에서 벌이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92.5.18)



정 치

＊ 등소평의 남순강화

등소평이 연초에 남순기간에 발표한 중요강화가 현재 금년 중공중앙 2호문건의 형식으로 중공 전체 당원과 간부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통제하고 있는 많은 계통과 부문의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대한 등소평 강화의 전달속도 범위와 세목 등의 진행정도가 이미 최근 대륙의 『정치기상도』가 되었다.

등소평은 담화중에 경제발전의 시기 장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많은 주변국가들과 지역경제 발전은 우리보다 빠르다 만약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너무 느리면 일 반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등소평은 지식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일부분이며 아울러 해외에 머물러 있는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귀국할 수 있다고 거듭 천명했다. (明報 1992.3.7)

＊ 보수파 陳雲, 鄧지지 표명

중국 보수파의 거두인 陳雲 중국공산당 중앙 고문위원회 주임이 鄧小平의 개혁 가속화 및 대외개방 노선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고 중국관영 新華통신이 1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5.2)

＊ 中國 최대 지하핵실험

中國은 21일 서북부 지방의 지하핵실험장에서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지하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미국정부와 北歐의 스웨덴 및 노르웨이 지진학자들이 밝혔다. (국민일보 92.5.22)

＊ 「天安門정치범」고문·학대 극심

中國당국은 지난 89년 天安門 사태와 관련, 체포된 정치범들에게 고문을 가했으며 일부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가 31일 주장했다.

(국민일보 92.6.1)

＊ 중국軍 장비현대화

중국군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최근에 SU(수호이)27 전투기에 이어 대형 수송기 일류신 76을 도입했는가 하면 T72M 고성능 탱크를 곧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각종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를 위해 러시아에 급격히 의존하고 있다고 일본의 닛케이(日經)신문이 29일 北京 발로 보도했다.

(국민일보 92.5.29)

＊ 改革반대 關係속청

中國최고지도자 鄧小平이 자신의 防左 改革路線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간부들을 공격한 가운데 中國공산당 中央委는 강경보수파 간부로 鄧路線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고육위원회 부주임 겸 黨組서기 何東昌을 해임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함으로써 보수좌파 간부들에 대한 숙청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의 星島日報가 보도했다. (중앙경제신문 92.5.29, 국민일보 92.6.3)

＊ 江澤民이 보수파 비난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14일 저녁 TV와 라디오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된 연설에서 개혁의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는 최고실력자 鄧小平(87)을 전폭

적으로 지지하고 당내 강경 좌파가 혁명적 구호로 『人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92.6.15)

**\* 中國 노동자들 개혁항의 파업**  
中國 上海경찰책임자인 주 다렌 공안국장은 상해의 일부 노동자가 최근 최고실력자 鄧小平의 개혁촉진 지시를 이행하는 공장 관리자들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보복조치를 취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조선, 국민일보 92.6.16)

**\* 鄧小平 東北순시 경제개혁 등 독려**  
中國의 최고지도자 鄧小平이 瀋陽을 비롯한 북동부공업지역 순시에 나서 보다 과감한 경제개혁을 독려하고 있다고 北京의 민을 만난 소식통이 18일 전했다. (국민일보 92.6.19)

**\* 中國 軍備확장 추진**  
냉전종결로 美國과 러시아가 군비 삭감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中國은 舊蘇聯製 최신 예전투기와 전차 항공모함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구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日本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일 중국사정에 정통한 홍콩의 군사정보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동아, 국민일보 92.6.20)

**\* 鄧, 대거 要職기용 준비**  
中國최고지도자 鄧小平은 개혁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올 가을쯤 열릴 黨第14기 全國代表大會를 기해 前黨총서기 胡耀邦과 趙紫陽등과 관련이 있는 개혁파 인물들을 요직에 다시 기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紙가 25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6.6)

## 한·중 관계

**\* 中國 南北조기통일 不願**  
한반도를 둘러싼 中國, 러시아, 日本 등은 각기 다른 이유로 韓國의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존 블로이트씨가 21일 주장했다. (국민일보 92.5.22)

**\* “中國, 韓國과 수교 안기로 약속”**  
中國은 북한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국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전까지는 韓國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약속한 바 있다고 李三魯북한 외교부대사가 17일 밝혔다. (조선일보 92.5.19)

**\* 中國産수입 34억弗**  
지난해 총34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을 한국에서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농산물수입액이 10억달러로 전체 수입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92.6.2)

**\* 무역차원 넘어 직접 投資도 확대**  
중국무역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鄭鴻業 회장은 7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회견에서 『지난해 韓中間 무역은 5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92.6.9)

**\* 上海무역관 10월 설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中國과의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10월경에 上海무역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이 上海에 지사설치를 허가하지 않던 그동안의 방침을 바꿔 우리기업의 지사 설치를 허가한 것은 한국정부가 중국측 상사주재원에 대한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들에게 장기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우호적인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일보 92.6.13)

**\* 韓中 첫 합작목장 축산교류 새 軍**  
중국 연변지방에 최초의 韓中 합작 목장건설이 추진중이다. 관광개발과 연결시가 공동 추진중인 목장은 건국대로부터 축산 및 조림기술을 제공받아 연결시 인근 依蘭지방 수백만 평을 대상으로 총 2억5천만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국민일보 92.6.17)

**\* 中國 설치 허용**  
중국정부는 최근 駐北京 한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금성사, 두산산업, 코오롱상사 등 3개 국내기업의 北京지사 설치 허가를 통보해왔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 (국민일보 92.6.22)

**\* 중국 銀 서울사무소 인가**  
재무부는 사회주의국가 은행의 국내사무소로는 처음으로 中國은행(Bank of China)의 서울사무소 설치를 지난 2일자로 인가했다. (조선일보 92.7.4)

\* 中國 심천전역 保稅區 추진

中國의 深圳경제특구는 특구전역을 保稅區로 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신청했다고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심천경제특구 당국자는 『심천전지역을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기 위해 鄧小平의 지시에 따라 보세구역방안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동아일보 92.5.11)

\* 中國 토지사용권 分讓

中國은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매각, 中國의 방대한 토지를 「富의 원천」으로 만들 것이라고 중국관영 英字紙 차이나데일리가 12일 보도했다.

中國의 현행법률에 따르면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개인이나 단체는 그 사용권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다. 전국에서 총 2천5백ha의 토지가 국내외 수요자에게 분양되어 총 25억 원(약 4억5천9백만 달러)의 세입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 들어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국민일보 92.5.13)

\* 日취업 中國人 低賃불만

中國인 근로자들은 中國에 진출한 일본합작회사들의 근무조건에 65%가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조선일보 92.5.19)

\* 수입제도 대폭 개선

中國은 올해 대외무역체제를 중점적으로 개혁, 수입관리제도를 대폭개선하고 관세제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맹국 지위에 걸맞게 선진국들 요구수준으로 인하 조절할 것이라고 홍콩의 中國系신문인 文匯報가 보도했다.(조선일보 92.5.26)



Cymbals and Bells

\* 국제경제위원회를 부활

中國은 강력한 개혁정책추진부서였으나 지난89년 6월 천안문사태직후 폐쇄됐던 국가경제위원회를 부활, 국무원산하 生産辦公室의 기능을 대신 맡게할 것이라고 홍콩의 더 스탠더드가 26일 보도했다.(한국, 조선일보 92.5.27)

\* 내륙 30개 都市 새 經濟特區 지정

中國의 최고 실력자 鄧小平은 연해지방에 이어서 中國 내륙에 있는 30개 도시를 앞으로 새로운 경제개발특구로 지정, 외국에 개방하는 한편 정부 중앙기관의 인력을 대폭 삭감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고 일본의 도쿄(東京)신문이 4일 북경발로 보도했다.(국민일보 92.6.4)

\* 中國 경제개혁 난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中國의 국영기업 재편을 둘러싸고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공장 노동자들이 최근 공장간부를 구타하는가 하면 심지어 파업까지 불사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中國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조선,국민일보 92.6.11)

\* 대만출판업 大陸시장 근침

대만의 출판업자들이 지금 中國시장을 놓고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일부 발빠른 업자들은 이미 대륙의 깊은 곳에 교두보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조선일보 92.6.11)

\* 中國 국영기업 노동자 올해 140만 명 해고

中國정부의 적자 국영기업 정비조치로 올해 1백40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됐다고 中國 英字紙 차이나 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中國정부는 지난해말까지 각 국영기업들이 경영개선을 위해 잉여노동력을 줄이고 근로고용법을 정비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으며, 올해초부터 고용보장·급료보장·직책보장을 의미하는 「三鐵主義폐단」을 타파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중앙일보 92.6.14)

**\* 中國국영기업 사상 첫 파산선고**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영기업이 파산했다. 홍콩언론들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제특구 심천시의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0일 全民所有制 기업, 즉 국영기업인 廣昌공사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여기로 결정, 중국에서 파산법이 통과된 이래 이 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다. (한국일보 92.6.14)

**\* 원료가격 통제**

중국 관리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5년내 모든 원료에 대한 국가의 가격통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中國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6.18)

**\* “시한폭탄” 中國증시**

中國을 붉은 자본주의로 만들겠다는 최고지도자 등소평의 개혁정책은 사회주의 경제에 주식시장을 접목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한다. 그러나 주식제도는 鄧의 개혁시나리오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시한폭탄인지도 모른다.

中國 주식시장의 위기는 올여름 혹은 가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로 예정된 제14차 공산당 대회의 保·革간 한판승부를 앞두고 北京 政情이 술렁거릴 경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이어져 증시폭락은 권력투쟁의 順으로 비화될 수 있다.

(국민일보 92.6.19, 경향신문 92.6.26)

**\* “해외자본 기다립니다”**

中國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최소한 2백50억 달러의 해외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며 특히 첨단기술 및 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中國정부당국자가 최근 언급. (동아일보 92.6.20)

**\* 中國 海南島 다시 개발붐**

중국최대의 경제특구인 최남단섬 海南島가 제2차 개발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天安門사건으로 중국의 改革·개방노선이 일시 후퇴하면서 海南島에의 투자붐도 냉각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외국 자본의 투자가 크게 늘어 海南島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한국일보 92.6.20)

海南省 경제협력국 부국장은 韓國, 日本, 美國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海南島는 천연가스, 석유 등 천연자원과 관광 자원이 풍부하며, 저렴한 지가, 稅政上의 우대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 92.3.2)

**\* 中國기업 減員회오리**

중국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기업들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1백만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최근중국관영 차이나 데일리紙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92.6.22)

**\* 中國 揚子江 유역 28개市 개방 발표**

중국은 내륙에 위치한 양자강 계곡 지대를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취해온 경제개혁 개방정책에 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고 관영 新華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6.29)

**\* 中國 개방 이끄는 沿海 4대도시군**

天津·上海·廈門 및 廣州 등 중국개혁개방의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한 연해지역 4대도시군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60여개 군소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이들 4대도시군은 전국토 면적의 13%와 전체인구의 41%를 가지고있으며 현재 전국국민총생산(GNP)의 52%를 차지한다.

그만큼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외국 직접 투자의 약 80%가 이 지역에 몰리고 있다. (경향신문 92.6.29)

**\* 中國 天津에 전용工場**

빠르면 올해안에 중국 天津에 한국 전용공단이 착공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92.7.4)



# 중국여행상식



## 1. 여행의 계절

### ① 여행에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

중국을 여행하는 데는 봄과 가을이 가장 좋다. 중국은 비록 남쪽이라고 해도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은 상당히 추울 때가 많다. 그래서 봄은 중국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오래 기다려온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여행하면, 중국인은 매우 밝은 얼굴로 맞아주며 거리의 이곳저곳에 있는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어디에서든지 비교적 좋은 기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에는 여름의 무더운 더위가 싹 사라지고, 중국인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시기이다. 중국인들이 '여행한다면 이 계절'이라고 권할 만큼 여행하기에 좋다. 물론 봄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맑은 날씨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봄과 가을은 외국인 여행자가 여행하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여행도 있다.

봄이나 가을에 여행하고 싶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시기에 긴 휴가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여행을 봄이나 가을에만 하는 것도 아니다. 여름에는 여름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중국이 있고, 겨울도 역시 추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중국이 있다.

여름은 華北(화베이), 東北(동베이), 실크로드를 여행하는 데 가장 좋은 계절이다. 특히 東北(동베이)지방은 시원하고, 습도도 낮아서 여행하기에 아주 좋다. 또 이 시기만큼 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때는 없다.

겨울에는 우선 北京(베이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겨울의 華中(화중), 華南(화남)은 흐린 날씨가 많아서 여행을 하기에 그다지 상쾌하지 않으므로, 기온은 낮지만 확실하게 태양이 나오는 北京(베이징)의 맑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이 시기에 보는 萬里長城만큼 중국을 실감하게 해주는 것도 없다.

## 2. 열차여행(硬座 안의 풍경)

### ① 진짜 중국인을 보게된다.

#### ④ 중국인이 가진 짐과의 싸움

차내가 사람만으로 혼잡하다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인의 짐은 굉장히 많은데다 어느 것이나 무겁고 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인이 여행용 보스론 백이라고 부르며 가지고 다니는 가방은 아주 커다란 검정 색이나 회색의 합성가죽가방으로 그 표면에는 '上海(상하이)' 라든가 '北京(베이징)'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런 '上海製(상하이즈)' 큰 백을 1인당 평균 1개 정도 가지고 탄다. 중국인 중에는 이 백을 혼자서 6개나 가지고 타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탈 수 있을까 궁금할 정도

이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나무 天稗棒(티엔청팡)을 사용하여 천평의 좌우 양쪽에 2개씩, 그리고 양손에 1개씩 들면 확실히 6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이 硬座는 붐빈다.

짐을 얹는 선반에는, 앞서 말한 백이나 마(麻)로 만든 곡물주머니가 겹겹이 쌓여 있고, 그곳에 쌓지 못한 짐들은 사람들과 함께 바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차내는 입주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짐은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얹을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좀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 타고 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전쟁이다.

열차가 역에 도착해서 열차 문이 열리면 硬座 차내는 화재라도 난 것처럼 대소란이 벌어진다. 역에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 좌석에, 창밖으로부터 유유히 자신의 짐을 던져놓고 나중에는 창으로부터 쓰러지듯 물려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 그런가 하면 차량 사이에 있던 사람이 내리는 사람을 밀어젖히고 빈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등 한판 전쟁이 벌어진다.

이 때 승강구는 사람들이 대량의 짐을 꺼안은 채 입구에 '와' 하고 모여 들어 앞서 말했던 天稗棒(티엔청팡)을 휘두르며 빨리 좌석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승강구는 빨리 내리려는 사람과의 일대 접전이 벌어진다.

모처럼 어렵게 열차에 타더라도 자기가 든 짐이 내리는 사람의 짐과 얹혀서 짐에 질질 끌려가게 되면 결국은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무서운 여자 승무원이 오게 되고 결국, 전원이

하차당하게 된다. 마침내 다른 입구로 타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고 중얼중얼 투덜대며 다른 입구로 돌아가는 바람에 차지하려던 좌석도 놓친 채 열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다시 다음 전쟁을 기다리게 된다.

## ㊤ 차내에서의 필수품

우선 열차와 컵을 들 수 있다. 중국열차에서는 무료로 뜨거운 물을 배급해 주는 서비스 제도가 있다. 뜨거운 물이 든 포트가 오면 컵에 뜨거운물을 받아서 천천히 즐긴다.

다음으로 준비할 것은 돗자리나 비닐로 된 보자기. 이것은 硬座(잉쥬어)에서 좌석을 구하지 못했을 때의 필수품이며, 짐이 더러워지는 것도 막아준다. 중국에서 살 수 있고 한국에서 가지고 가려면 접는 비닐 돗자리가 좋다.

그리고 감귤이나 배, 과자 등의 음식도 가져가는 것이 좋다. 여행중에는 식사 때에 맞춰 밥을 챙겨 먹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 갈 때는 반드시 약간의 먹을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차내에서 여러 사람이 갖가지 먹을 것을 권하는데, 항상 받아 먹기만 하는 것도 마음내키는 일은 아니므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음식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러 모로 硬座(잉쥬어)는 중국의 축소판과 같다. 호기심이 넘치고 꾸밈이 없는 중국인들로 가득차 있는 곳이다. 때로는 질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시 와글거리는 열차를 타고 싶어진다. 





# 祈 雨

(번역: 김성곤)



중국은 고대로 농경이 중심이 된 사회였다. 농업은 각종 자연 조건과 인문요소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특히 기후에 의하여 좌우된다. 기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온과 우량이며 농작물을 파종할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필요하고 또한 농작물이 자랄 때에도 높은 기온과 많은 비가 요구된다. 농민들에게 있어 농경은 단지 기술면에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경을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조상신께 보호해줄 것을 구한다. 보통 삼, 사월중에 벼를 이앙하게 된다. 속담에 "삼월에 내리는 비는 귀하기가 기름과 같다. 삼, 사월에만 비가 오면 풍년이 들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벼씨를 뿌리고 이앙을 하는 이 기간에 내리는 비를 일반적으로 '穀雨'라고 한다. 음력 오, 육월은 무더운 계절이어서 벼가 아주 빠르게 성장한다. 이 시기에는 특히 우량이 많아야 하며, 그래야 어린 벼들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시기에 연속해서 삼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양수기를 이용하여 약한 어린 벼에게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천수답의 경우에는 일단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싹이 곧 시들어 죽게 될 것이므로 농민들은 필연적으로 비를 구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비를 구하는 것을 '祈雨' 혹은 '求雨'라고 한다. 祈雨의 최대의 특징은 이 행사가 공동의 기원이라는 데 있다. 비가 오는 것

은 전마을 농민들의 관심사이므로 마을사람 모두가 참석하여 비를 기원한다. 또한 祈雨는 특정한 한 마을의 일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그래서 각 마을들은 공동으로 祈雨 의식을 거행한다. 祈雨 의식은 종류가 다양하며, 그 방법도 가지가지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祈雨의 의식이나 그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

1. 曬龍王 - 이것은 龍王像을 뜨거운 해 아래에서 햇볕을 쬌리게 하는 祈雨 방법이다. 河北省 冀縣 남쪽 저宜村에서는 이 지역이 큰 가뭄을 당하게 될 경우, 마을 사람들은 벼들가지로 만든 모자를 쓰고서 龍王廟에 모여 龍王像을 사당 앞 광장으로 들어내어 '曬龍王'을 거행한다. 北京부근의 清河村에서는 가뭄을 당할 경우 마을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후에 노천에 神卓(신상을 모시는 탁자)을 설치한다. 그리고 그 위에 벼들가지로 만든 감실을 올려놓고 龍王像을 그 감실 안에 넣어 두거나, 龍王像을 꺼내어 햇볕을 쬌인다. 祈雨의 대상이 되는 신은 일반적으로 龍王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關帝나 玉皇, 혹은 觀音 등 전설상의 비교적 영험한 신들을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曬龍王'은 신이 뜨거운 햇볕을 쬌이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를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 외에 위협하는 식의 祈雨 방식으로 雨神이 거주하는 龍潭이나 神池 중에 석탄이나 茶油의 찌꺼기를 넣어서 물고기들이 반

쪼름 죽어서 물 위로 떠오르게 하거나, 고의로 샘물을 더럽게 하여 雨神으로 하여금 어류들을 구하고 샘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廣東省의 翁源縣에서는 이러한 祈雨 방식을 '打龍潭'과 '打大河'라고 부른다.

2. 盜龍王 - 河北省 祁臺縣의 孔橫村 서남쪽에는 龍王廟가 하나 있다. 사람들이 祈雨祭를 지낼 때에는 龍王會를 거행하는데, 龍王會의 심육, 칠명의 회원들은 이웃 동네로 가서 龍王像을 도적질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어떤 지역의 龍王像을 훔쳐와도 그것은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년의 힘센 사람이 회장이 되어 매년 너댓개의 龍王像을 훔쳐와서 자기들의 마을 사무소 안에 둔다. 훔쳐 온 龍王像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또 자기마을의 龍王像도 꺼내어 함께 마을 사무소 안에 놓아둔다. 그런 뒤에 다시 龍王像을 매고 '百泉'이라고 부르는 神池로 간다. 부인과 어린 아이를 제외한 전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 행렬에 참가해야 한다. 이 祈雨祭의 행렬이 지나가는 마을의 마을사람들은 모두 차를 준비하여 접대한다. 이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借光'이 있다. 이것은 龍王廟가 없는 마을의 경우로, 다른 마을로부터 神像을 빌려오는 것이다. 만약에 효험이 있어 비가 올 경우에는 神像을 새로 칠하여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낸다.

3. 巡廻 - 많은 지역에서는 龍王像을 메고서 마을간을 순회하는 것으로 祈雨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河北省 昌黎縣의 侯家營莊에서는 龍王像을 대바구니에 넣어서 메고 부근 마을들을 순회한다. 각 마을은 집집마다 물항아리를 준비하여 그 안에 버들가지를 꽂아두고 누런 종이에 '九江八河五湖四海龍王之位'라고 써서 항아리에 붙이고 나서 물항아리 앞에서 향을 사르며 절을 한다. 순회행렬이 집 앞에 도착하면 물항아

리의 물을 행렬을 향하여 뿌린다. 순회행렬은 도중에서 옛 우물을 보게 되면 반드시 엎드려서 제사를

하며, 아울러 "비를 내려 주오!"라고 외친다. 행렬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맨발에 버들가지로 짠 모자를 쓴 남자들이다. 부근 마을들을 순회한 후에는 자기마을로 돌아가서 龍王廟 앞에 모여 다시 야간 기도를 한다. 어느 경우에는 祈雨祭를 거행할 당시 "만일 비를 내려주시면 유회를 한바탕 현상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도 하며, 만일 비가 왔을 경우에는 추수가 끝난 뒤에는 현상한다. 이것을 '謝雨'라고 한다. 또 어느 마을에서는 순회를 하는 동시에 玉皇廟의 옛 우물의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取水'라고 불리우는 의식은 각종 祈雨의 방식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取水 - 이 祈雨 방식의 특색은 본마을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신성한 못이나 샘물에 가서 물을 취하여 온다는 것이다. 山東省 歷城縣 冷水溝莊의 祈雨의식은 주로 물을 취하는 '取水'의식이다. 祈雨祭를 지내기 앞서 삼일 동안 전마을 사람들은 齋戒를 한다. 파나 마늘 육류를 먹지 않으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부부의 합방도 피한다. 祈雨祭를 지내는 날이 오면 먼저 玉皇廟의 신상을 꺼내서 가마에 놓은 다음 길 떠날 행렬을 갖춘다. 맨 앞에는 마을의 네 명의 장로가 서고, 그 다음은 깃발을 든 사람들이 두 줄로 서며 그 다음으로 제단에 앞드려 절하는 사람들이 두 줄로 서고, 그 뒤로 또 세 줄로 선 사람들이 진행하는데, 이들 중 가운데 사람은 구리 그릇을 가지며,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깃발을 든다. 그 뒤로 가마가 뒤따르는데, 가마 좌우에는 각각 도사 한 명씩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약 열 명의 가마꾼들이 뒤따르며 교대로 가마를 멘다. 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

# 알림

## ◆ 선교도서 안내 ◆

은 모두 버들가지로 만든 모자를 쓰며, 출발하기 전에 총을 세 번 쏘고, 다른 마을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총을 쏜다. 행렬이 다른 마을을 지날 때에는 그곳의 사람들도 예물을 준비하고 분향하며 제사한다. 또 그곳 사람들이 원래의 가마꾼들을 대신하여 가마를 메기도 한다. 목적하던 물가에 다르면, 먼저 가마를 내려놓고 紙錢을 불살라 제사를 한다. 후에 물을 길고, 붕어를 잡아서 병에 넣어가지고는 병을 가마 앞에 바친 다음 다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돌아간다. 물을 길어 올 때 그 물 속에서 붕어를 잡아서 함께 가져 오는 것은 붕어를 뜻하는 중국어 '鯽魚'의 발음이 소나기를 뜻하는 '魚雨'와 같기 때문이다. 본마을로 돌아 올 때에는 물병을 가진 사람들은 행렬을 떠나서 지름길로 먼저 玉皇廟에 돌아간다. 붕어가 고궁에서 죽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렬이 본마을에 돌아 온 후에는 다시 분향하고 제사한 다음 각 사람마다 비를 기원하는 말을 한다. 의식을 마친 후에 마을 사람들은 자기집으로 가서 휴식을 취한 다음, 저녁식사 후에 다시 玉皇廟 앞에 모인다. 이때 도사는 종이를 불사르고, 향을 피우며, 三官北斗經을 읽는데, 전마을 사람들은 모두 玉皇廟의 안과 밖에 꿇어 앉아 듣는다. 조금 뒤에 다시 밤 열두시에 다시 모인다. 이러한 의식을 삼일 동안 지속한다. 만일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날에 곧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내고 아울러 신상을 위하여 새로운 옷을 지어 입히고 새로 칠을 해준다. 그리고 다시 '取水'할 때와 마찬가지로 행렬을 갖추어서 부근을 순행한다. 이러한 '取水' 방식의 祈雨祭는 각 지방마다 존재한다. 

(「中國民俗學」중에서)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br>(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br>(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 핸드북(두란노 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000원 |
| 5. 중국어성경번역소사                        | 1,000원 |
| 6. 信仰讀本                             | 5,000원 |
| 7. 神愛世人                             | 1,500원 |

## □ 교재 안내 □

- |                                    |                  |
|------------------------------------|------------------|
| 1. 中國語 聖經<br>(신약+ 시편+ 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br>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br>1,000원 |
| 3. 經文背誦<br>經文背誦 Tape               | 1,500원<br>1,000원 |
| 4. 睡夢鄉<br>睡夢鄉 Tape                 | 1,000원<br>1,000원 |
| 5. 飛行屋<br>飛行屋 Tape                 | 1,000원<br>1,000원 |
| 6. 初級中國語 I<br>初級中國語 I Tape(10개)    | 3,000원<br>6,000원 |
| 7. 初級中國語 II<br>初級中國語 II Tape(10개)  | 4,000원<br>6,000원 |
| 8. 中國文化二十講<br>中國文化二十講 Tape(3개)     | 5,000원<br>1,500원 |
| 9. 我的第一本聖經<br>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br>1,000원 |
| 10. 예수 讚美(중국어 찬양집)                 | 4,000원           |
| 11.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12. 信仰讀本(Good News Leader)         | 5,000원           |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세요.  
(TEL. 594-8038, 533-5497)

# 『공자 모택동 그리스도』와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연구부 제공)

## 『공자 모택동 그리스도』

이 책은 "CONFUCIUS, MAO AND CHRIST" (by Paul E. Kauffman/Asian Outreach)를 김영국 장로가 완역한 것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하였다.

이 책은 세 가지 특색이 있다.

첫째, 역사적 시야가 넓다는 데 있다. 중국 선교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저자는 먼저 중국 역사의 서술부터 시작하여 "중국인"의 특질을 그 사상과 종교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환언하면 선교의 중요한 과제로 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과거의 중국 선교가 그 문화에의 적응에 실패한 사실에 대한 커다란 반성이기도 하다.

둘째, 이 책에는 전편에 걸쳐 영적인 흐름이 일관되어 있다. 역사가 어떻게 변천하더라도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확립된다고 하는 승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

셋째, 이 책은 앞으로의 중국 대륙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들은 중국이 참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즉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예비해야 하겠다. 중국 대륙에는 14억의 중국인과 270만을 헤아리는 우리 동포가 있는 황금어장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

라 역사, 문화, 전통이 옛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나라는 중국에 대한 선교가 가장 적합한 나라이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내 사랑 황하를 흘러』

이 책은 루벤 아쳐 토레이(R. A. Torrey;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의 선교수기를 그의 딸 클레어 토레이 존슨이 쓴 것으로 국민일보에서 번역, 출판한 책이다.

1913년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로부터 중국 선교사 임명을 받은 루벤과 그의 아내인 자넷 맬러리(Janet Mallary)는 중국 산둥지방의 치푸에 있는 언어학교에 입학했고, 1년 후에는 그 지방의 수도에서 사역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다.

사역 초기에 토레이는 마을 사람들과부터 공격을 받아 맞기도 했으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 그곳에서의 선교사역이 중단되기 전에 토레이는 그 지역에서 3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볼 수 있었다. 그는 평신도 훈련을 통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중에, 앞으로 닥칠 오랜 암흑기에 대비하여 크리스천들을 훈련시켰다.

1941년에 자넷과 루벤은 그들의 막내 아들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고, 6개월 후에는 그렸솔름호를 타고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1947년에 토레이는 다시 중국에 파송되어 중국 전지역의 기독교 기관 복구를 위해 장로교회가 모금한 4백만 불을 분배하는 일을 맡았다.

공산당이 상하이를 점령한 후인 1949년에 토레이는 그가 사랑하고 고국처럼 아꼈던 중국에서 더이상 선교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으로 되돌아온 루벤은 65세의 나이에 내키지 않는 은퇴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뉴욕 사무실로부터의 예기치 않던 부름이 그의 계획을 변경시켰다.

그는 한국에서 3만 명의 민간인 수족 절단자를 위한 재활계획을 운영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952년에 그는 일꾼을 모아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고, 7년 동안 3천 명 이상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의수족을 붙여 주었고, 그들을 유용한 사람들로 훈련시켰다. 불행인 듯 보이던 일(오른팔을 잃고 그 상처로 인해 계속적인 고통을 당한 일)이 변하여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간이었다. 실로 로마서 8장28절 말씀의 산 증거다.

이 전기를 읽으면 그들의 삶이 실로 자신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한다. 

# 주간중보기도 제목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16:24)

|   | 중국내                                                                                                                                                           | 국내 선교회 및 교회들                                                                                                                                                    | 선교사                                                                                                                                                                       |
|---|---------------------------------------------------------------------------------------------------------------------------------------------------------------|-----------------------------------------------------------------------------------------------------------------------------------------------------------------|---------------------------------------------------------------------------------------------------------------------------------------------------------------------------|
| 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륙의 정치형세를 주께 관장하시어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를 누리도록</li> <li>중국교회평신도 지도자들이 열리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CC회관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중국교포초청전도반회에 많은 교포가 참여하도록</li> <li>9월 중순 개교예정인 '중국선교훈련원'에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참여하기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선영 선교사와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보장해주시도록</li> </ul>                                                                                      |
| 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하남, 산둥, 허베이 등지의 이재민이 하루 빨리 하도록</li> <li>중국 각지의 이란의 세력을 쫓아주시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2선교한국대회(8.10-15)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전신 행되고 많은 구체적 헌신과 일이 일어나기를(특히 중국선교헌신자)</li> <li>중국선교훈련원의 조직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성지 선교사와 성령에 민감하여 그 지도하심 대로 헌신하며 그 사역 감당하도록</li> <li>언어, 풍토, 문화에 속히 적응하도록</li> </ul>                                               |
|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경시의 관리들이 삼협 사업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고 해결의 방안 찾을 수 있도록</li> <li>중국해남도의 개발이 북쪽의 통로가 되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지역 교회들이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사역을 시작하도록</li> <li>중국선교훈련원 적당한 장소와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대위 선교사와 현지교회와 잘 협력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li> </ul>                                                                           |
| 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정치, 경제의 회오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뜻을 나타내 주시도록</li> <li>중국 장강 연안 28개 항구와 내륙 30개 도시 북구가 북음전파의 통로가 되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항의 중국선원에게 복음과 찬양을 통해 선교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li> <li>중국선교훈련원의 학과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애린 선교사와 '사랑의 집' 사역을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인내로써 감당하도록</li> </ul>                                                                             |
| 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실업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울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li> <li>중국정부의 교회에 대한 편견을 바꿔 주시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랑의 집'의 활발한 양육과 서울연 인근의 교포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중국선교훈련원의 강사진들이 주님께 헌신된 유능한 일꾼들로 채워지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안도 연구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연구과정을 잘 감당하도록</li> </ul>                                                                                |
| 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이지 않도록</li> <li>중국인들에게 복음이 잘 전되는 분위기로</li> <li>중국정부의 8곳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선견이 보일 수 있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월 5일-16일에 있을 중국기독교협의회와 한국교회 방문 속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li> <li>중국선교훈련원이 선교지망자들을 잘 훈련하여 중국전도사역에 적절히 대응하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만열 선교사와 공동의 공장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li> <li>매일집회 인도하는 선교사 내외부의 건강을 위하여</li> <li>매일 안전운전을 위하여</li> <li>선교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위하여</li> </ul> |
|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당국의 교회탄압정치가 중세로 풀려지고 간헐적 핍박이 잦아지지 않도록</li> <li>중국공산당 안에 복음의 종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륙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성령의 인도로 잘 감당하도록</li> <li>중국어문선교회가 주신 고유한 사명을 성령의 인도로 잘 감당하도록</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신한 중국교포들이 귀국하여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도록</li> </ul>                                                                            |

## 소식

### 중국언어선교회 세미나

중국어문선교회 정기세미나가 8월 10일 한국 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에서 홍콩 중국교회연구소의 연구원이신 왕쓰웨이 연구원을 강사로 모시고 '중국삼자교회의 최근현황'이란 제목 하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 중국선교훈련원 개원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원(MTI. for China)이 9월 14일 개원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원되는 중국선교훈련원은 주간과정과 야간과정 그리고 주말과정으로 나뉘어 개설되는데 각 과정은 1년 2학기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광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 선교중국어 특별연수회

선교중국어를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선교중국어 특별연수회가 8월 3일(월)~8월 5일(수)까지 합숙훈련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 대상은 중국어고급사역자는 물론 초급, 중급 수준의 희망자도 포함됩니다. 장소는 신림동 '사랑의 집'이며 회비는 1만원 입니다. 자세한 것은 본선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한미한중화기독교 80주년 기념대회

한국에 화교교회가 설립된 지 80주년을 맞아 그 기념대회가 8월 11일부터 8월 14일 까지 정동기독교 중화한성교회와 부천 서울신학대학에서 각각 열립니다. 상세한 것을 중화기독교한성교회의 중국복음선교회(778-36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토요중국학 강좌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학 강좌가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게 될 이 강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청년학생들의 책임!

- 기간 : 1992년 8월 10일(월) ~ 15일(토)
- 주제 : "2,000년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국 청년·학생들의 책임!"
- 장소 : 한양대학교(서울 성동구 소재)
- 참가인원 :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청년 대학생 3,500명
- 주최 : 선교한국 '92 조직위원회
- 후원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학원복음화협의회
- 등록 : 6월 30일 등록(대학생: 45,000원, 일반인: 55,000원)  
7월 25일 마감(대학생: 55,000원, 일반인: 65,000원)

- \* 회원단체 소속회원은 각 단체를 통하여 기타는 출석교회 목사님 추천서와 신청서를 예약비 2만원과 함께 보내시면 등록됨.
- \* 참가신청이나 자세한 정보를 담은 팸프렛은 137-070 서초구 서초2동 20-1 서초 삼익상가 3층 선교한국 사무국(CPO BOX 6601, TEL. 02)555-2713, 팩스563-0661)으로 연락하면 보내드립니다.



## 중국선교세미나

중국선교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셨습니다?  
격월간으로 실시되는 중국선교세미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제: 중국 삼자교회의 최근 현황

일시: 8월 10일(월) 저녁 7시~9시 30분

강사: 왕쓰웨이 연구원(홍콩 CCRC)

장소: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

주최: 중국어문선교회

### 편집후기

\* 본호에는 「'92중국선교대회」의 세미나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중국선교에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잘 제시한 귀중한 내용일 듯,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해도해도 끝이 없다 싶은 작업이 아마 출판작업인 듯. 휴, 아! 컴퓨터 타자의 경쾌함 속에 간간히 들려오는 탄식소리(?) 그래도 끝

내고 난 후의 그 상쾌함이며 謝謝上帝!

\* 7월은 아무래도 무더위라는 또 하나의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나봅니다.

모두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아울러 저희 출판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거니와... 願上帝祝福你!

..... (박)

### 중국을 주께로 헌금

「중국을 주께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보다 많은 교회나 개인에게 이책이 보급되도록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
|------------|-------------------|---------|
| 송금방법: 한일은행 | 081-167289-12-001 | 중국을 주께로 |
| 국민은행       | 084-01-0283-625   | 중국을 주께로 |
| 제일은행       | 378-10-063999     | 중국을 주께로 |